



2014 학습법 공모전

수상작 모음집



아주대학교
AJOU UNIVERSITY

교수학습개발센터
Center for Teaching and Learning

2014 학습법 공모전 수상작 모음집



CONTENTS

○ 최우수

- 학업과 대외활동 두 마리 토끼 모두 잡는 나만의 노하우 07
전자공학과 10 송광근
- 대학생의 자기계발 시간 관리법 15
기계공학과 09 정재훈

○ 우수

- 너의 머릿속에 지도를 그려라! 그리고 그 지도를 설명하라! 27
심리학과 10 김태형
- 나의 학습 노하우 33
간호학과 11이인희
- Everybody is Talented, Original,
and Has Something Important to Say! 37
경영학과 12 황금빛
- K-CESA를 활용한 나의 핵심역량 강화 스토리 45
전자공학과 09 황용하

○ 장려

- A+가 굴러들어오게 하는 기적의 학습법 53
전자과 09 박인성
- k-cesa를 기초로 한 역량개발계획 수립 및 실천방법 65
심리학과 11 이정혁
- 짧고 굵게 공부하는 3, 5, 7, 9 공부법 71
e비즈니스과 10 전수민
- 성공적인 학점 관리, 리포트와 조별과제로부터 시작하자 76
정치외교학과 11 홍성은

2014 학습법 공모전 수상작 모음집





○ 최우수

- 학업과 대외활동 두 마리 토끼 모두 잡는
나만의 노하우
전자공학과 10 송광근
- 대학생의 자기계발 시간 관리법
기계공학과 09 정재훈



2014 학습법 공모전 수상작 모음집





[나의 학습 노하우]

학업과 대외활동 두 마리 토끼 모두 잡는 나만의 노하우

전자공학과 10 송광근

1. 학업을 준비하는 나만의 노하우!

작년에 주최했던 2013년 학습수기공모전 당시, 나는 1학년 시절 평점이 2.1에 불과했지만, 노력을 통해 학점을 4.41까지 올린 과정을 수기로 작성하여 장려상을 수상하였었다. 그 때의 자신감을 토대로 나는 지난 1년간 다시금 스스로를 향한 도전을 통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었다. 작년 학습수기를 읽은 학생 혹은 새롭게 들어온 신입생 중 단 한명이라도, 이러한 나의 기록을 보며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두 번째 수기를 작성한다. 먼저, 나는 현재 목표였던 누적학점 4.0의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1학기에는 작년과 같은 높은 성적을 유지하며 장학금을 받았으며, 그 배경에는 나만의 학습 전략이 큰 밑거름이 되어주었다. 하지만, 4학년이 되는 지금 시점에서는 이러한 학과 성적뿐만이 아닌, 대외활동, 입사지원 등 공부 외적으로도 시간을 할애해야하는 일들이 많이 생겨났다. 따라서 작년 2013 학습수기에서는 단순히 공부법만을 소개했다면, 이번 학습수기에서는 좀 더 보완된 공부법과 추가적으로 시간관

리 방법, 내가 생각하는 올바른 대외활동 선택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나는 공부할 때 항상 다섯 가지 원칙을 지킨다. 다섯 가지 방법은 당연한 방법처럼 보이기 쉬우나 놓치기 쉬운 방법이기도 하다. 나는 내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이 5가지만은 지켜보자!’라는 생각을 갖고 수업에 임해볼 것을 권한다.

먼저 첫 번째, ‘모든 수업에서 가장 앞자리에 앉자’

앞자리에 앉는 것은 단순히 집중도를 높이고, 필기를 꼼꼼히 할 수 있다는 장점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앞자리에 앉음으로써 얻게 되는 가장 큰 메리트는 “교수님과 교감”이다. 우리가 왜 2:1과외보다 1:1과외를 선호하는지 생각해보자. 수많은 학생들 사이에서 교수님의 눈에 가장 들기 쉬운 방법은 바로 앞자리에 앉아 수업을 경청하는 것이다. 한두 번 앞자리에 앉다보면 자연스럽게 교수님과 이야기도 나누게 되고, 교수님께서도 나를 통해 수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시기도 한다. 이보다 더 좋은 과외가 어디에 있을까?

두 번째, ‘점수와는 별개인 과제나 퀴즈라도 열심히 준비하자’

전공과목 중에 퀴즈와 과제의 비중이 적은 과목이 있다. 그런 과목에 있어서 과제와 퀴즈까지 포괄한 큰 그림을 그리며, 시험을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공부할 것을 권한다. 과제와 퀴즈는 본 과목과 별개가 아니기 때문에, 분명 중간고사 혹은 기말고사에 포함되는 내용일 것이다. 그러므로 시험을 준비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과제와 퀴즈를 준비한다면 시험기간에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세 번째, ‘지각과 결석을 절대 하지 않는다는 각오를 세우자’

전자공학이라는 전공과목의 특성상 단순한 지각과 결석보다는 수업내용을



잘 이해했는지가 점수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지각과 결석을 자주 하게 되면 수업내용의 흐름을 잃게 되고 점점 따라가는 것이 남들보다 뒤처지게 될 수밖에 없다. 이걸 어떤 전공과목이라도 똑같은 것이다. 또한, 잦은 지각과 결석은 학습의지를 꺾고, 스스로를 나태해지게 만들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집중력저하는 시험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네 번째, '어려운 내용이 있다면 녹음해서 다시듣기로 복습하자'

수업을 듣다보면 집중력이 흐트러지거나 다른 생각으로 인하여 교수님이 한 말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런 의미에서, 수업이 끝나고 제대로 된 복습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이러한 복습을 하기 위해 교수님의 수업내용을 녹음하며 녹음파일을 들으며 순서에 맞게 복습한다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고, 교수님께서 하셨던 중요한 말을 체크할 수 있어 시험에 상당히 유리하다.

다섯 번째, '남들보다 한 발 앞서 공부하자'

남들과 같은 방법, 남들과 같은 정도의 공부를 하게 되면 남들만큼의 성적을 얻게 된다. 나는 전공실험과목은 모두 A+를 받았다. 그 이유는, 실험을 준비할 때면 남들과 달리 나는 기본 실험 외에도 항상 기본을 응용한 추가 실험까지 준비해갔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준비를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조교님께서도 다른 학생들과 다른 의욕적인 모습을 좋게 봐주시기 때문에,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다. 또한, 나는 실험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에서도 단순히 복습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습을 하며 내가 교수의 입장이라면 어떤 시험문제를 출제할까를 예상하며 준비하고 있다. 그렇게 준비한 요점을 토대로 공부하기 때문에, 바쁜 시험기간 때 남들보다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었다.

2. 대외활동을 준비하는 나만의 노하우!

요즘 취업을 위해 혹은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많은 취업 준비생들이 다양한 대외활동을 준비한다고 알고 있다. 하지만, 대외활동의 종류도 무궁무진한 만큼 모든 대외활동이 취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나에게 있어서 올바른 대외활동이란 자신의 전공 혹은 취업 분야와 가능한 관련이 있는 분야의 활동을 말하며, 그 활동을 통해 자신의 실력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대외활동이야 말로, 진정으로 원하는 기업에 들어가기 위한 자기소개서 준비, 면접 준비에 있어서 자신과 다른 지원자들과의 차별성, 경쟁력을 갖게 만든다. 이는 고스란히 기업에 자신을 어필할 때에 쓰일 수 있는 나만의 비장의 무기가 될 것이다. 실례로, 나는 지난 겨울방학에 주변 친구들이 토익학원을 다니고, 제2외국어를 공부하고 있을 때, 무작정 전공지식에 대한 심화 교육을 듣겠다는 일념 하나로 기술학원에서 AVR실무과정을 수료했다. 이 과정은 주로 현직에서 근무하시는 실무자들이 듣는 수업으로 대학생 수료자는 나 혼자였지만, 덕분에 실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업무 수행 중에 느끼는 실제 사례를 듣기도 하고, 다양한 질문을 들으면서 전공 지식의 폭을 넓힐 수 있었던 좋은 기회가 되었다. 이렇게 방학을 이용해 부족한 전공에 대한 심화학습을 거친 나는 학기 중에는 기계공학과 자동제어 연구실에서 인턴활동을 수행하였다. 인턴활동은 방학 기간부터 학기 중까지 이어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활동이었다. 대회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에는 천안, 보령과 같은 지방에 내려가 컨테이너에서 밤을 지새며 무인자동차 제작에 공을 들였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내가 원하는 자동차 업계로의 취업에 도움이 되는 관련 지식을 많이 쌓을 수 있었으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직접 설계함으로써 프로그램 사용에도 능숙해지게 되었다.



그 결과, 몇 주 전에는 이러한 활동을 높이 평가해주신 전자공학과 학과장님과과의 면담을 통해 현대자동차 멘토링 프로그램에 추천을 받아, 그토록 원하던 현대자동차 취업에 한 발 가까워지게 되었다. 나는 비록 남들처럼 화려한 대외활동도 없으며, 하다못해 토익성적도 없었지만, 현대자동차 인사개발 과장님과과의 실제 면담에서 전공과 관련된 자신만의 스토리가 있는, 전공에 대한 열정이 강한 사람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회사에서도 그러한 인재를 더 선호한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다.

또, 이와는 별개로 준비하고 있었던 삼성전자 소프트웨어 멤버십에서도 서류전형에 합격하여, 몇 일전에 치른 면접에서는 그간의 대외활동을 통해 얻은 전공지식을 활용해 떨지 않고 스스로의 역량을 당당하게 발휘하고 올 수 있었다.

이처럼, 특출한 대외활동 혹은 스펙이 없는 내가 원하는 기업에 가까워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학업과 대외활동을 별개가 아닌 하나로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3. 시간을 관리하는 나만의 노하우!

그렇다면, 학업과 대외활동을 병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간관리 비법이 필요할까?

고학년이 될수록 모든 학생들은 시간에 쫓기는 삶을 살게 된다. 점점 더 어려워지는 전공과목,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기업 인턴 지원과 같은 취업과 연계되는 양질의 대외활동을 준비하다보면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나만의 시간관리 노하우를 만들어, 효과적으로 시간을 관리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진부한 이야기로 들릴 수 있지만, 시간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본은 역시 “메모”이다. 여기서 말하는 “메모”란, 단순히 정보를 열거하는 혹은 아무데에 아무렇게나 적어 놓은 글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나의 모든 일정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메모를 해놓는 습관이 있다. 예를 들면, 과제의 제출기한에서부터 시험날짜, 퀴즈날짜, 기업 서류 제출날짜 등이다. 이러한 일정을 전부 보기 좋게 메모를 해놓으면 먼저 해야 될 것을 비교할 수 있고, 내가 앞으로 어떠한 것을 해야 되는지 정확히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하루의 시간을 쪼개어 어디에 얼마만큼의 시간을 할당해야 되는지를 예측할 수 있는 굉장히 효율적인 시간분배 방법이다.

위에서 언급한 방법들을 토대로 미리 준비하고 항상 복습하는 자세로 공부를 해 나간다면, 원하는 학점을 얻는 데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 외에도, 대외 활동을 할 때에도 진정으로 자신의 커리어에 도움이 되는 활동이 무엇인지를 가장 먼저 파악하여 관련 활동에 적극적으로 도전한다면 결국 이러한 일련의 활동들이 자신이 원하는 목적지로 도달하는 데 있어, 자신만의 강한 힘이 되어 줄 것이다.

누구에게나 자신에게 맞는 자신만의 방식은 있을 것이다. 그러니 이 글이 학습법의 정의나 해답이 될 수는 없다. 하지만, 이 글을 읽는 아주대학교 학우 여러분이 ‘저 사람의 방식은 저렇구나. 그렇다면 나만의 학습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남들과 차별화 된 나만의 강점은 무엇일까?’, ‘나도 한 번 저 방식은 써봐야겠다!’라는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이다.

처음에도 말했듯이, 나의 수기를 통해 지금까지의 자신의 학습법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학교생활을 점검해볼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글을 마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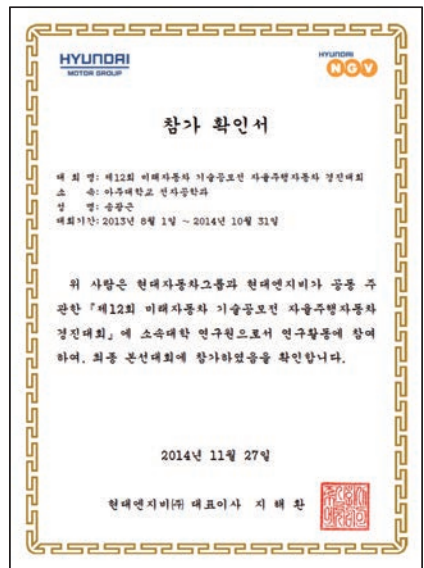


2013	2학기	전자회로1	전필	3	A+
		신호 및 시스템	전필	3	A+
		논리회로실습	전필	2	A+
		논리회로	전필	3	A0
		생명과학	교필	3	A+
		과학사	교필	3	A+
		취득학점 : 17	학산출점 : 75.0	평점평균 : 4.41	백분위점수 : 98.2
2014	1학기	자동제어	전선	3	A0
		디지털시스템설계	전선	3	A0
		기술과 경영	교필	3	A+
		반도체공학1	전필	3	A+
		컴퓨터 네트워크	전선	3	A+
		전자회로실습	전필	2	A+
		취득학점 : 17	학산출점 : 73.5	평점평균 : 4.32	백분위점수 : 9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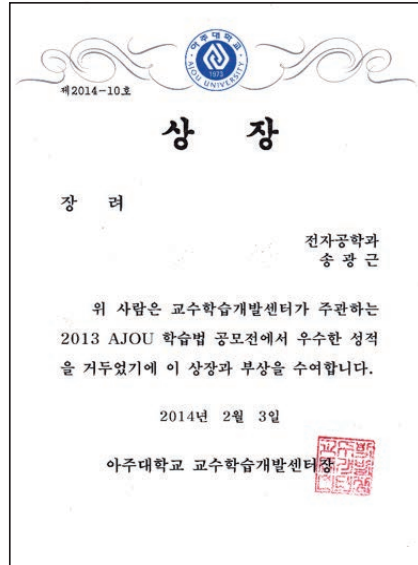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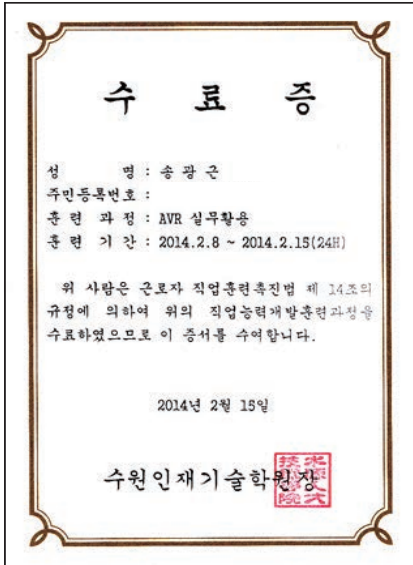
▲ 꾸준히 높은 학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기계공학과 자동제어 연구실 인턴활동을 통하여 현대자동차에서 주관한 자율주행 경진대회 참가 사진



▲ 현대자동차에서 주관한 자율주행경진대회 참가 확인서



- ▲ 실무적인 능력을 쌓고자 방학기간을 활용하여 AVR 실무활용과정 수료
- ▲ 2013학습수기 공모전에서 장려상 수상

[참고]송광근 학생의 성적사항, 상장, 수료증 등은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수록하였음



[나의 학습 노하우]

대학생의 자기계발 시간 관리법

기계공학과 09 정재훈

Abstract : 이것은 내가 대학생이 되어서 시간 관리를 사용했던 방법이며 그것을 모아둔 노하우이다. 나는 이 방법을 통해서 현재 3번의 Dean's List(상위 5%)에 선정되었으며 아직까지 한 번도 재수강을 하지 않았다. 졸업하기 전에 노하우를 나누고자 대학생의 자기계발 시간 관리법을 작성한다.

Keywords : 시간관리, 대학생활, 학점관리, 다이어리, 학점 4.5 받는 법

I. 서론

1. 동기

내가 시간 관리법을 노하우로 작성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누구나 처음에 대학생이 되고 나면 고등학교에서 보내던 시간과는 다른 시

간을 보내게 된다. 너무나 많은 변화가 있지만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24시간 모두 누군가가 계획해준 시간이 아니라는 점이다. 고등학교와 다르게 시간표도 스스로 만들 수 있으며 야간자율학습처럼 공부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도 않다. 게다가 그 누구도 공부하라고 타이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 역시 같은 시절을 겪었고 시간의 자유를 누렸다. 하지만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은 무시할 수 없었고 결국엔 군대를 나와서 재수강을 하는 자와 재수강하지 않는 자로 구분되는 것을 보았다. 1학년 때의 등록금이 아깝지 않았으면 좋겠다.

2. 준비물

준비물은 다이어리다. 핸드폰이나 태블릿, 컴퓨터를 이용한 다이어리 작성이 편리하고 빠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나는 아날로그를 추구하며 가방에서 다이어리를 꺼내서 손으로 작성하는 것이 더 빠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리와 필기구를 주로 사용하며 서브로 핸드폰과 웹이 연동되는 어플을 사용한다.

가. 조르테 캘린더(어플)



[1] Jorte

월간 계획을 작성하는데 주로 사용한다. 구글 캘린더와 연동되며 '할 일 목록'을 쉽게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안드로이드, iOS 모두 어플이 있으며 클라우드를 통해서 핸드폰, 태블릿 그리고 웹에서 같은 캘린더로 연동된다.



나. 다이어리(바인더)



[2] 다이어리(3P Binder)

내가 사용하는 다이어리다. 3P 바인더로 기존의 다이어리와는 조금 다르게 생겼다. 링이 3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20공의 구멍들이 있으며 A4 사이즈의 반쪽인 A5사이즈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하기도 쉽고 따로 속지를 사지 않아도 자가로 프린트가 가능하다. 능력만 된다면 스스로 양식을 만들 수 있다.

II. 본론

보통 새해가 되면 정말 열심히 계획을 세우곤 한다. 하지만 평생 이루지 못할 것 같은 거창한 계획들을 한 해의 계획으로 세우게 된다. 그리고 흔히 하는 것은 작심삼일이며 1달이 지나면 다 잊게 되는 것이 새해 계획이다. 나도 많이 했기 때문에 잘 안다. 결국 나중에 스스로에게 실망하게 되고, 목

표를 세워도 성취하지 못한다는 것이 학습되면 큰 문제가 된다. 그래도 이제 조금씩 잘못된 습관을 버리고 하나씩 성취하고 꿈과 목표를 놓치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다. 그것을 2015년 다이어리에 적용해보면 어떨까?

1. 자신의 꿈을 세우고 리스트를 작성하고 매일 본다.

자신의 꿈과 미래를 직접 써놓거나 이미지를 이용해 작성해 놓는다. 우리 뇌가 이미지화 했을 때 그것을 실체라고 느끼기 때문에 자신의 꿈과 가장 가까운 사진이나 이미지를 뽑아서 붙여놓자.

2. 연간계획 & 월간계획

먼저 연간계획을 세우고 그것에 맞게 월간계획을 세운다. 나의 꿈과 그와 관련된 계획을 너무 큰 틀에 담아 놓으면 관리되지도 않고 실행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3] 월간계획표



그렇기 때문에 한 해의 목표를 세우면 중요한 것은 월간 계획으로 쪼개서 작성한다. 위의 그림처럼 직접 작성하는 것이 제일 좋다. 하지만 나는 준비물에서 언급한 어플을 사용한다.



[4] 월간계획표(어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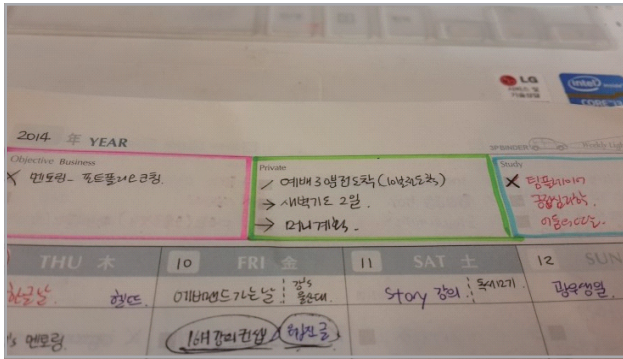


[5] To-do List

내가 사용하는 기능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월간계획을 한 눈에 보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To-do List이다. 월간계획표의 경우 그림 [4]와 같이 생겼으며 원하는 날짜에 일정을 기록하는 것은 물론이고 해당 날짜를 누르면 등록했던 일정이 자세히 나온다. 그리고 더불어서 To-do List를 사용해 해야 할 일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3. 주간계획

일간계획을 세웠으면 다시 그것을 주간계획으로 쪼개야한다. 주간 계획은 3일 + 3일 계획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다.



[6] 주간계획 3일 + 3일

위의 그림 [6]과 같이 작심삼일을 1년 동안 반복하는 것이다. 작심삼일을 120번 정도하면 1년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3일간의 To-do 리스트를 작성해서 써놓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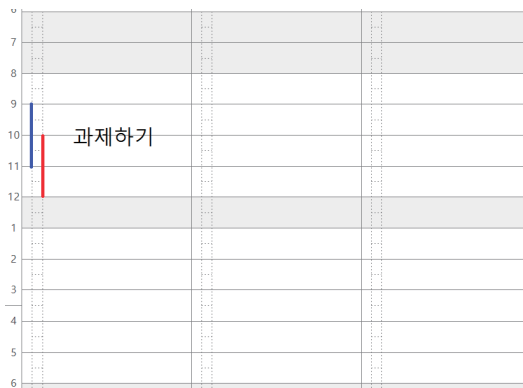
[7] 주간계획



주간계획표의 가장 큰 장점은 한 주 동안에 해야 할 일과 했었던 일을 한 눈에 볼 수 있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또는 내가 빼먹은 일이 없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다.

4. 일간계획

일간계획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노하우 중에 노하우라고 볼 수 있다. To-do List에 쓰여 있는 목록을 보면 스트레스만 쌓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To-do List에 있는 것을 언제할지 정해놔야 한다.



[8] 일간계획표

그림 [8]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계획표 양식이다. 하루를 30분으로 쪼개서 계획하는 것이다. 나는 먼저 주말에 앞으로 1주일 동안의 스케줄 중에서 수업이나 아르바이트 등 고정된 시간을 다 적어 놓는다. 그리고 그림 [8]처럼 파랑 선으로 계획된 시간을 표시한다.

그 다음에 To-do List에 있는 것을 알맞은 시간과 걸리는 시간을 예상해 하루를 계획한다. 이렇게 하면 앞으로의 1주일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매일 아침 그 날의 하루를 더욱 자세하게 계획하고 수정해야한다. 이 과정이 하루 동안의 삶의 질을 바꿔놓는다.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실제로 수행했던 시간을 빨강 선으로 표시한다. 마지막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수정해야 할 점이나 감사한 일이 있었는지 하루를 되돌아본다.

III. 결론

자신의 꿈을 쪼개고 분해하고 나눠야한다. 그것은 결국 목표가 되고 하루의 계획이 된다. 물론 나도 이렇게 체계적으로 살지 못하며 꿈을 이룬 것도 아니다. 우리는 코딩된 로봇이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계획을 완벽히 실행할 수 없다. 하지만 그것은 시간이 지나고 여러 번의 피드백을 통해서 나에게 필요한 시간과 적합한 계획을 세움으로써 조금씩 더 완벽한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작심삼일이더라도 작심삼일을 계속하고 피드백 하는 것이 핵심인 것을 잊지 말아야한다. 이 과정은 매우 어려울 수도 있고 귀찮은 과정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작은 각도의 차이가 멀리 가면 큰 차이를 보이게 되듯이 결국 남들과 작은 차이가 시간이 흐르면서 큰 차이를 보이게 될 것이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자. 아직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더 많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 글이 작은 정보이지만 누군가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



IV. 출처 및 참고문헌

- [1] http://dbsctthumb.phinf.naver.net/0727_000_465/20130718063702036_P1YG9SHZ3.jpg/A49C27F2E74AA131.jpg?type=appG1
- [2] http://postfiles13.naver.net/20141117_140/tanglehappy_14162111443727IAHX_JPEG/20141117_073710.jpg?type=w2
- [3] http://postfiles13.naver.net/20141121_60/tanglehappy_14165497281819M1Yk_JPEG/20141117_163308.jpg?type=w2
- [4] 본인 캡처
- [5] 본인 캡처
- [6] http://postfiles6.naver.net/20141121_261/tanglehappy_1416547949791RAu1V_JPEG/20141121_141410.jpg?type=w2
- [7] http://postfiles6.naver.net/20141121_293/tanglehappy_14165479501666TcSj_JPEG/20141121_141418.jpg?type=w2
- [8] 본인 캡처

2014 학습법 공모전 수상작 모음집





○ 우수

- **너의 머릿속에 지도를 그려라! 그리고 그 지도를 설명하라!**
심리학과 10 김태형
- **나의 학습 노하우**
간호학과 11 이인희
- **Everybody is Talented, Original,
and Has Something Important to Say!**
경영학과 12 황금빛
- **K-CESA를 활용한 나의 핵심역량 강화 스토리**
전자공학과 09 황용하



2014 학습법 공모전 수상작 모음집





[나의 학습 노하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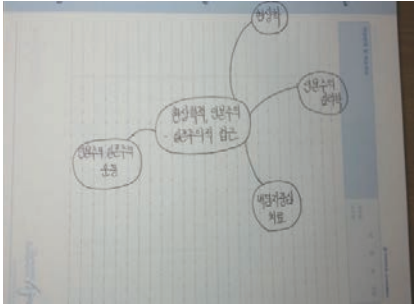
너의 머릿속에 지도를 그려라! 그리고 그 지도를 설명하라!

심리학과 10 김태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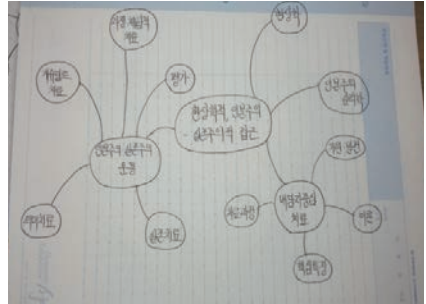
일단 나의 학습법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나에 대한 얘기부터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나는 학교 선생님이신 부모님 밑에서 성실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아이로 자라왔다. 나의 유년시절은 명백한 목표는 없었지만 당연히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만 한다는 생각들 속에서, 매일을 독서실에서 새벽2시까지 독서실 안에서 충실히 보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만큼의 성적은 나오지 않았고 이때부터 하나의 물음이 나를 괴롭혀 왔다.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는데 도대체 왜 공부를 한 만큼의 점수는 오르지 않는 걸까?’ 라는 물음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에서도 나를 계속해서 따라다녔다. 그리고 대학교에 와서도 역시, 1학년 2학년의 나는 공부한 만큼의 성적이 나오지 않았다. 답답함에 학습법에 대한 책들을 읽었지만 나에게서는 효과가 없었다. 그러던 나는 치열한 경쟁을 뚫고 공군으로 입대를 하게 되었고 모든 것이 시험을 통해 결정되는 그곳에서 나는 수도권에 위치한 부대로 배치 받게 되었다. 그곳에서의 사람들은 대부분이 소위 ‘SKY대학’, ‘인 서울’ 재학중인 사람들이었다.

바로 그곳에서 2년동안 그들과 생활하면서 나는, 나에게에는 없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다. 그것은 공부의 '원리'였고 그들은 그 원리를 각자가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구축하고 있었다. 그리고 제대 후, 심리학 수업시간에 인간의 인지, 사고과정에 대한 수업을 듣게 되면서 내가 깨달았던 부분이 인간의 사고능력, 인지능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고 이 내용들을 통해서 학습법의 '원리'들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후 나는 새로운 학습법을 적용하여 공부하게 되었으며 제대 후, 이전에는 학점 3.5점을 간신히 받았던 나는 학점으로 4.5, 4.4점,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성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제 나만의 학습법을 소개하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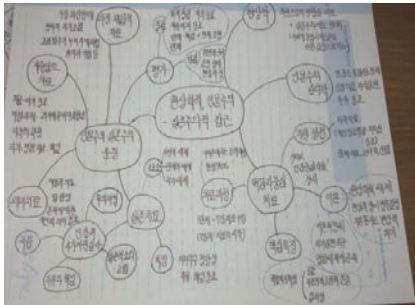
첫 번째 방법은 기억, 이해의 원리에 관련된 내용으로, 머릿속에 지도를 그리는 것이다. 바로, 마인드 맵을 그리는 것이다. 우선적으로 이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예전의 나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도 그럴 것이지만, 공부를 할 때 특정한 방법이나 목적 없이 그냥 책을 쪽 읽고 각 파트를 개별적으로 외우는 것만으로 공부를 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과목, 지식들은 논리체계를 갖고, 체계들은 서로가 유기적인 흐름, 즉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자면 '집중력을 키우는 방법'이라는 단원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여기에서는 집중력이 무엇인지에 관한 정의, 집중의 원리, 현재까지 집중력을 키우기 위해 그 동안 제시되었던 방법들, 각 방법들의 문제점 순으로 내용이 일정한 흐름, 이야기를 가지고 제시될 것이다. 실제로 인간 기억의 목적은 단순한 암기가 아니라 핵심을 위한 것이다. 마인드 맵은 바로 이러한 원리에 충실히 부합되는 도구로써, 이를 그리면서 자연스럽게 전체적인 흐름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어 유기적으로 내용을 볼 수 있게 해주어 이해를 더 상향 시킬 수 있고, 이야기를 만들면서 마인드 맵을 그리게 되어, 기억을 용이하게 할 것이다. 이러한 마인드 맵을 그리는 단계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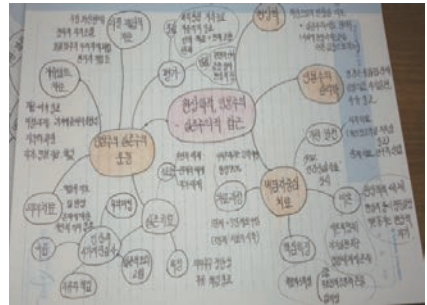
〈Step1. 우선 큰 주제먼저 그린다〉



〈Step2. 소주제(하위내용)를 그린다〉



〈Step3. 세부내용을 적는다〉



〈Step4. 각 내용의 중요도를 표시해준다〉

각 단계 사이마다 한 과정이 포함해야 하는데, 처음에 자료를 보고 해당 마인드 맵을 그렸다면 이 단계에서는 자료를 보지 않고도 마인드 맵을 그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머릿속에서 그린 마인드 맵이 이전에 책을 보고 그린 마인드 맵과 일치한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마인드 맵을 그릴 때의 필수 요소는 마인드 맵의 개념들을 자연스럽게 연결시킬 수 있도록 부분들을 하나의 이야기로 만드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 인간의 기억의 목적은 단순 암기가 아닌 핵심이기 때문에 마인드맵을 있는

그대로 외우려는 생각은 하지 말고 ‘정의는 이렇고 어떠한 식으로 분류를 하였고 이 부분들은 이렇게 연결 되어있는 것 같다’라는 식으로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서 외운다면 훨씬 기억, 이해에 도움을 줄 것이다.

두 번째 방법은 마인드맵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머릿속에 확실히 입력하였고, 이해하였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인데 바로 ‘설명하기’이다. 그 방법은 심리학에서의 ‘메타인지’라는 개념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다. 메타인지란 지식에 대한 지식으로 자신이 어떠한 내용을 아는지 모르는지를 분별해주는 구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학습에 있어서 내가 어떠한 개념을 아는지 모르는지에 대해서 놀랄 만큼 스스로가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서 “된장찌개를 무슨 재료가 들어가는가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보라!” 라고 말하면 많은 이들이 안다고 생각했지만 설명하지는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메타인지에 대한 내용은 이미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소개가 되어왔는데 EBS다큐멘터리 ‘0.1%의 비밀’에서 상위 0.1%의 학생들을 구분할 수 있게 해주는 능력이 바로 이 메타인지로 소개되었고 우리 학교에서 진행한 학습법 특강, ‘집중력 학습법’ 특강에서도 강사님이 메타인지에 대해서 설명해주신 적이 있다. 그러나 특강이나 매스컴 모두 어떻게 이 기능을 키울 수 있을까에 대한 설명은 간과해왔고 나는 집중력 특강 이후에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다, 우연히 심리학 수업에서 그 방법을 배울 수 있게 되었다. 그 방법은 간단하다. 바로 ‘설명하는’ 것이다.

이 ‘설명하기’라는 방법은 마인드 맵을 그리면서 언제나 사용할 수 있다. 머릿속에 마인드 맵을 그린 후, 그 내용을 기준으로 스스로에게, 혹은 다른 사람에게 수업을 하듯이 설명해보게 되면 해당 부분에서 설명이 안되거나 막히는 부분이 생기게 되는데, 알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해도 확실하게 설명할 수 없는 것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모르는 것으로 간주



해야 한다. 이후, 설명한 후에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완함으로써 자신이 몰랐던 부분을 차례대로 알아갈 수 있을 것이고 이를 반복하면서 자신을 확실하게 점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마인드맵을 완전하게 스스로의 머릿속에서 그릴 수 있으며, 이를 자신에게, 다른 사람에게도 완벽하게 설명해낼 수 있다면 그 개념은 이미 온전히 자신의 것이 된 것이라 말할 수 있다. 또한 이 단계에 도달한다면 자연스럽게 학습한 내용이 기존의 다른 개념들과의 혼합, 융합이 가능해지게 되어 내용의 심화를 할 수 있게 한다. 뿐만 아니라 이 학습법을 사용하면 좋은 점이 있는데, 예를 들어 시험을 보게 되었을 때 분명히 아는 부분인데 특정 부분의 내용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게 될 때의 답답함을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학습법을 적용해 공부했다면, 이 상황에서 스스로 머릿속에서 마인드 맵을 그리게 되고, 해당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를 거미줄 같은 연결망으로 그 부분의 상위개념(대주제, 소주제), 하위개념들을 그릴 수 있을 것이고 이 연결망들은 보다 수월하게 해당 부분을 기억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해주어 쉽게 해당 부분의 내용을 인출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사실 이 두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처음에는 많은 노력을 요구하고 심적 에너지를 많이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처음 이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다소 힘겹게 느껴질 수가 있다. 그러나 꾸준한 노력으로 몇 번만 주의 깊게 연습해서 자신의 방법으로 만들어낸다면 점차 빠른 시간 내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며 자신의 최대 무기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그 동안 나만의 학습법을 찾는데 주력하였으며 매 시험마다 각기 다른 방법으로 시도도 해보았고 많은 학습법에 관련한 책들, 학교에서 하는 학습법 특강, 공부 잘하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면서 많은 지식들을 찾아왔다. 나는 앞으로도 더 발전된 나만의 학습법을 찾으려고 노력할 것이고 아마 그것은 평생 지속되는 노력의 과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더 나은 학습법을

찾으려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되면서 나 자신도 그만큼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 학습법 공모전에 참가하게 되면서 나 자신의 학습법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할 수 있었고 이 기회를 통해서 보다 나의 학습법을 점검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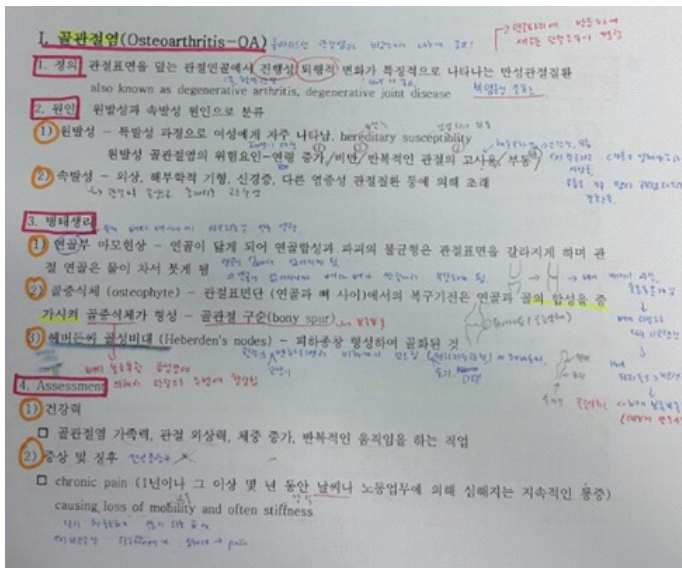
[나의 학습 노하우]

나의 학습 노하우

간호학과 11 이인희

저는 현재 졸업을 앞둔 아주대학교 간호학과 4학년입니다. 제가 대학시절 전공과목을 공부했던 내용 및 방법을 토대로 글을 써내려볼까 합니다. 저도 4년 내내 공부에만 열심히 임하지 못하였고, 제가 학업에 열중하여 학점을 올릴 수 있었던 계기가 있었습니다. 2011년 아주대학교 간호학과를 입학하고 솔직히 1학년때는 밴드동아리, 봉사동아리, 수화동아리 등 그동안 해보지 못했던, 꿈꿔왔던 캠퍼스 생활을 즐기며 공부에는 손을 놓게 되었습니다. 1학년을 마친 후 제가 얻은 성적은 3점대 초반이었고 그 결과로 광고관 기숙사에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충격으로 아마 그때부터 공부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학교앞에 비싼 자취방에서 살며 매일매일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을 가지며 전공과목 공부에 임했습니다. 고3 이후로 매일 복습이란 것을 해보고 처음으로 도서관에서 밤도 새어가며 공부를 했었는데 전공과목이기도 하고 실습평가도 있었던지라 쉽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때 첫 시험에서 생물 4등급이라는 처참한 점수를 얻고 난 후 언젠가 티비에서 본 메모리트리라는 것을 해 본적이 있습니다. 큰단원부터 소단원까지 단원별로 분류해서 단원 제목을 나무몸통에, 핵심어는 나뭇가지에 써놓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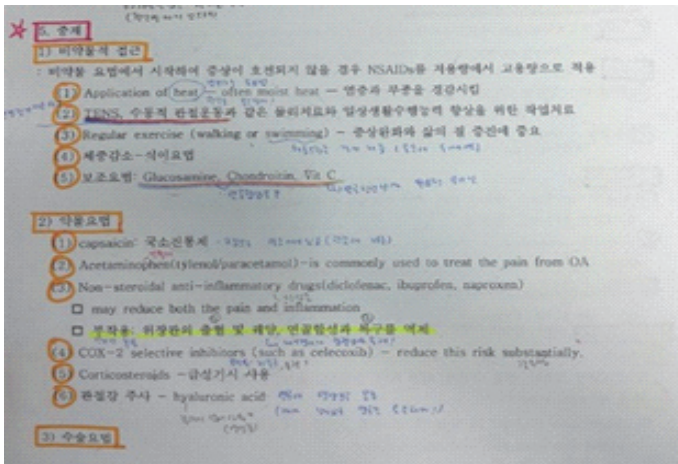
마인드맵식으로 연상시켜나가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때 핵심부분만 골라서 이쁘게 나무도 그리고 신선한 방법으로 공부를 하니 재미도 느끼고 성적도 차근차근 올라 내신 1등급을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교 공부는 양도 많고 어려워서 일일이 메모리트리를 그리는게 쉽지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큰 단원, 소 단원별로 색깔을 달리하여 구분하며 머릿속에 넣는 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어느 색깔이 큰 단원인지 어느 색깔이 어느 단원에 들어가는 소단원인지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다보니 시험성적이 정말 한번에 속 올랐고 무엇보다 주관식을 정확하게 잘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간호학과는 ‘질병과 케어, 증재’ 중심으로 배우기 때문에 소화기계, 순화기계, 근골격계, 비뇨기계 등 우리 몸 전체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과 각각의 질병들을 하나 하나 자세히 배우는데 외울 것도 많고 각 질병마다 다른 치료법으로 어중간하게 공부하면 헛갈리는게 당연합니다. 제가 공부했던 메모리 트리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위 프린터 물은 성인간호학의 근골격계 질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근골격계 질환 중 퇴행성 질환에 대한 내용인데 퇴행성 질환에 첫 번째로 골관절염이 있습니다. ‘골관절염’이라는 질병명에 제일 큰 제목이라는 표시를 합니다. 그 하위항목으로 골관절염에 대해서 1. 정의, 2. 원인, 3. 병태생리, 4. assessment 이 4가지에 자주색 펜으로 네모표시를 합니다.

그렇게 표시하면 일단 골관절염에는 공부할 것이 정의, 원인, 병태생리, assessment 이 네가지가 있구나라고 머릿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첫 번째로 정의를 공부하고 원인에서는 또 두 갈래로 나눕니다. 원인 중 원발성 원인과 속발성 원인, 이 두가지는 노란색 펜으로 동그라미 표시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병태생리에서 3가지를 노란색 펜으로 동그라미, assessment의 하위항목에도 노란색 펜으로 동그라미 표시를 합니다. 제가 쓰는 색깔은 큰 제목에 자주색으로 네모 표시, 작은 제목에 노란색으로 네모표시, 제일 작은 하위항목에 노란색으로 동그라미 표시를 하기 때문에 한 눈에 보기도 쉽고 구별하기 쉬워집니다.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중재’라는 제목에 자주색 펜으로 네모표시, 중재 안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1. 비약물적 접근, 2. 약물적 접근, 3. 수술 요법 이 세가지 제목에 노란색으로 네모표시 각각의 방법 안에 자세한 항목들에 노란색 펜으로 동그라미 표시를 합니다.

이런식으로 표시하면서 공부하다보면 어느 프린터에 어느 부분에 내가 원하는 답이 있는지 찾기도 쉽고 주관식으로 ‘OO질병의 간호중재에 대해 써라’라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각각의 방법들안에 쓸 수 있는 답가지가 머릿속에 딱 떠오르면서 이렇게 공부하고 나서부터 주관식을 정말 백점 받게 되었습니다. 성인간호학 뿐만 아니라, 아동간호학, 정신간호학 등 모든 교과목에서 저 방식을 적용하였습니다. 저는 1학년 때 학점 3점대 초반이라는 처참한 점수에서 제대로 공부한 2학년때에는 4.4로 확 뛰었고, 그 이후로도 학점 4점대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학기, 4학년 1학기때에는 대학생활 처음으로 4.5점이라는 학점을 받아서 전액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정말 뿌듯했습니다. 제 방법을 주위 친구들에게도 가르쳐줬지만 저렇게 한다는 것이 시간도 많이 들고 귀찮아서 다들 따라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시간도 많이 들고 각각의 제목마다 신경써서 공부해야 하지만 그렇게 했기에 지금 현재 저에게 남는 것은 정말 많습니다. 설렁설렁 공부한 친구들과는 달리 기본부터 지식이 체계적으로 잡혀있고, 국가고시를 쳐야하는 예비간호사이기 때문에 이때까지 열심히 달려온 제 자신이 정말 뿌듯하고 자랑스럽습니다. 국가고시 전까지도 제가 공부한 프린터로 지금까지 한 것처럼 열심히 한다면 훌륭한 간호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학습 노하우]

Everybody is Talented, Original, and Has Something Important to Say!

경영학과 12 황금빛

들어가며...

이실직고 하자면 나는 그룹보다는 1:1 대화가 더 편하고, 말보다는 글이 더 편한 사람이다. 그런데 저번 학기의 한 수업 이후에 나를 아는 사람이 많아지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 그건 오롯이 발표의 힘이었다. 덕분에 나는 평소 다른 수업이었다면 전혀 알지 못하고 스쳐지나갔을 두 명의 친구를 알게 되었고(고맙게도 발표를 잘 들었다며 수업 시간 후에 따로 대화를 걸어 주었다.), 간접적으로도 많은 학우들에게 내 이름을 새길 수 있었다. 여전히 내가 이러한 이야기를 할 자격이 있는지 의구심이 들지만, 조금이나마 의미가 있는 글이 되길 바라며 나만의 발표 노하우를 공유할까한다.

참고적으로 나는 20대에 해야 할 20가지, 무엇을 잘하는 법 등의 명분하에 삶에 정답을 내려 가르치고자 하는 자기계발서를 선호하지 않기에 본문에서의 넘버링은 구분을 위한 용도일 뿐 다른 의도가 없음을 밝힌다. 또한 앞서 말했다시피 더욱 발표를 잘하고 싶은 한 사람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부디 넓은 마음으로 봐주시길 바란다.

1. 이 발표가 시간 낭비가 아님을 밝혀라.

발표의 도입부에서 반드시 줘야하는 메시지는 이 발표가 청중들의 시간이나 집중을 낭비하는 발표가 아님을 알려주는 것이다. 내가 지금부터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할 것이라는 느낌을 주려면 일단 청중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한다. 호기심은 연사의 태도, 목소리, 표정에서부터 프레젠테이션의 주제, 내용, 이미지 등 전 방위에서 끌어낼 수 있다.

나의 경우는 발표용 PPT를 만들 때 스토리나 시사점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예를 들어 저번 학기 조직행위론 발표 주제는 고성과를 내는 그룹의 특징을 분석하는 것이었다. 대부분의 다른 팀들의 발표는 이러 이러한 특징을 가진 그룹이 고성과를 내는 것으로 밝혀졌다는 식의 설문과 조사 방법 즉, 자신의 팀이 한 일에 대해 중점적으로 발표했다. 우리 팀의 경우는 도서관 열람실 입퇴실 처리의 여부를 기준으로 고성과 연구를 진행했는데, 결론은 당연히 ‘양심이 있는 조직의 구성원들이 더 높은 성과를 낸다.’였고 시사점은 ‘우리 아주인도 도덕적으로 생활하여 경쟁력 있는 구성원들이 되자’라는 것이었다. 이 발표는 여러 학우들에게 좋았다고 평가를 받았는데 나는 그 이유로 배경 설명에 많은 공을 들였던 것을 꼽는다.

먼저 주제 선정 배경으로 우리가 살면서 내리는 많은 결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소소한 농담을 하면서 “저는 오늘 아침에도 20분을 더 자고 모자를 쓰고 올지 아니면 일어나서 준비를 깔끔하게 하고 나갈지 고민했습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은 제가 평상시에 모자를 쓰고 오는 날이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오늘은 이 발표를 위해서 깨끗이 씻고 왔습니다. 좀 뽀송뽀송하지 않나요?” 웃으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리고 이러한 소소한 결정에서부터 그 당시에 한창 사회적 파문으로 일고 있던 고객 개인정보 유출과 CJ그룹 비자금 의혹들 큰 사건들을 짚으며 도덕성이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말했다.

바로 본문으로 넘어가도 좋을 시점이지만, 나는 도덕성이 정말로 중요한지 의문을 던지며 방송인 박명수씨의 명언으로 유명한 여러 글귀를 소개했다. ‘참을 인 세 번이면 호구.’ ‘고생 끝에 골병 난다.’ 그리고 ‘헌신하면 헌신짝’과 같은 이야기들과 재밌는 박명수씨의 사진을 보여주며 재미와 공감대를 이끌었다. 과연 도덕성이 ‘고성과’라고 명명될 가치가 있을지 청중들에게 물어보며 생각하는 시간을 잠시 준 뒤, 최종적으로 EBS, 서울대학교 공동 연구 통계 자료를 보여주며 도덕성이 높은 사람이 집중력과 또래 관계가 좋다는 연관성을 찾았다는 결과와 함께 ‘도덕성은 경쟁력이다’라는 메시지 하나를 명확히 정립하고 본 발표에 들어갔다.

주제 선정 배경에 비하면, 우리 팀이 설문을 어떻게 돌리고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에 대해서는 간결하고 빠르게 지나갔다. 이미 수업을 듣는 학우 모두가 비슷한 과정을 거쳐 연구를 진행했기에 그 방법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할 필요를 못 느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얻은 결론이 얼마나 시사점으로 남아 임팩트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결과적으로 이 발표가 칭찬을 받은 것은 청중들의 집중을 발표 내내 잘 붙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이미 알고 있어 지루해질 수 있는 내용은 PPT에 담지만 발표 상으로 간결하게 넘어가는 재량이 필요하다. 또한 적절한 유머 코드와 지적 호기심을 채워줄 내용 역시 중요하다.

발표를 단순히 내가 전달할 내용의 흐름이 아닌, 사건과 갈등 등의 이야기의 힘으로 이끌어가며 ‘이 발표가 재밌고 유익할 것’이라는 느낌을 준다면 청중들은 발표에 집중하게 되어있다.

2. 시선 맞추기와 대본 보기, 그 경계선을 찾아라.

나는 발표 대본을 만드는 것을 좋아한다. 발표 시에도 준비한 자료를 모두 들고 나가는데, 질의응답 시간에 바로 기억하지 못하는 수치들이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것도 있고 혹시나 발표 중에 준비 했던 것을 빠뜨릴까하는 염려 때문에 대본을 꼭 준비한다. 많은 학우들이 종이를 들고 나가 읽는 것에 대해 비전문적이고 발표를 잘 못한다는 생각하는데, 과연 그럴까? 내가 생각하는 최악의 발표는 PPT를 그대로 읽는 것이다. 눈은 귀보다 빠르기 때문에 청중들은 스크린으로 슬라이드의 내용을 이미 훑고 있는데, 만약 연사가 그 화면을 청중들과 같이 보며 내용을 읽어준다면? 나는 그런 발표야 말로 정말 의미가 없는 발표라고 생각한다. 눈으로 보는 정보와 귀로 듣는 정보의 차이를 주는 것이야말로 청중들의 집중도를 오래도록 유지하는 방법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PPT를 키워드 중심으로 작성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이므로 또 다시 언급하지는 않겠다. 대본에 적혀 있어야 할 것은 PPT 상의 키워드나 메시지를 서포팅해주는 자료나 추가적인 이야기여야 한다. 그런데 보통의 10 ~ 15분의 발표 동안에 모든 내용을 숙지하여 실수하지 않고 발표를 하는 것은 학과 생활 현실 상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물론 이 발표만을 위해 준비한다면 가능한 일이지만, 경영학과는 특성상 발표 수업도 많고 팀 프로젝트도 많기 때문에 대본이라는 좋은 보조기구를 두고 굳이 그런 부담감을 안고 발표에 나갈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한다.

대본을 적극적으로 이용한다면 발표가 더욱 전문적이게 보일 수 있다. 문제는 분위기다. 내가 이 발표 내용에 대해 많은 준비를 하였고 알고 있다는 그 자신감을 내보이면 청중들은 대본의 유무에 대해 그리 신경 쓰지 않는다. 오히려 대본이 없이 말이 꼬이거나 목소리가 작다거나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경우가 발표의 질을 떨어뜨린다. 물론 대본만 읽으라는 것은 절대 아니다. 청중들과의 시선 맞추기는 ‘이기는 팀의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필수적이다. 모든 것이 내 컨트롤 하에 있다는 자신감이 바로 이 시선 맞추기에서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발표 내내 시선을 맞출 필요도 없다. PPT가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청중들의 시선도 스크린으로 분산되기 때문이다. 이 때 대본을 보며 주요 내용을 이야기하고, 청중들이 PPT를 모두 읽고 다시 연사에게 눈을 돌렸을 즈음에 연사는 마지막 한 두 줄을 눈으로 빠르게 확인하고, 다시 청중들의 눈을 보며 이야기하면 된다.

시선 맞추기와 대본 보기의 경계선은 발표 전에 연습을 두어 번만 해도 쉽게 흐름을 찾을 수 있다. 연습은 실전처럼 PPT를 컴퓨터로 틀어 놓고 화면 전환을 하며 대본과 함께 진행해야만 한다. 많은 사람들을 앞에 두면 긴장을 안 하려야 안 할 수 없는데, 만약 연습 때 대본만 보고 할 경우에는 화면 전환하는 동작 하나만 추가되어도 어색함이 배가되어 연습의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없다. 즉, 실전처럼 연습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발표에서 자신감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대본이 내용적인 자신감을 준다면 시선 맞추기는 표현적인 자신감을 줄 것이다.

3. 유머는 언제나 통한다.

내가 고등학교 2학년 즈음에 처음으로 기백명의 청중들을 상대로 발표를 할 기회가 있었다. 미국으로 1년간 교환 학생을 다녀온 뒤에, 후배 교환 학생들에게 소감 및 조언을 해주는 자리였는데 그런 큰 자리는 처음이었기에 긴장을 제법 많이 했던 것 같다. 그런데 내 앞의 두 명의 발표를 보니 아뿔싸,

내가 너무 딱딱하고 진지하게 대본을 써온 것이 아닌가! 어떡하지 고민하는 새에 시간은 빠르게 지나갔고, 나는 다나까 말투에 마치 개그 프로그램에 나올 법한 “이 연사 강력히 주장합니다!” 식의 어깨 힘 잔뜩 들어간 대본을 들고 연단에 섰다.

말투야 말을 하면서 합니다와 해요체를 섞어 쓰면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처음부터 너무 딱딱한 발표 내용이 말투에만 의해서 풀어질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순간적으로 나는 나도 모르게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대본에 없는 농을 곁었다. “1년 전,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그 자리에 앉아 선배님의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에 와, 나도 열심히 생활해서 꼭 내년에 저 자리에 서서 이야기를 해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참 감사하게도 생각한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만약에 제가 그 때 ‘와, 나도 꼭 대상을 타서 저 자리에 서야지’라고 생각했었다면 지금 받은 상의 이름이 달라졌을 텐데……. (당시에 나는 장려상을 수상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꼭! 목표를 구체적으로 잡아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의 웃음에 나 역시 긴장이 풀려 나머지 발표 역시 무난히 진행되었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그 뒤로 나는 ‘재미있는 발표’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 발표 상의 유머라는 것이 사실 생각해보면 대단할 것도 없다. 우리가 개그맨도 아니고 역지로 웃길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결혼 정보 업체 듀오에 대한 기업 분석 발표에는 결혼등급표를 보며 “아, 안타깝게도 우리 아주대는 이름으로 불리지 못하고 ‘기타 서울, 수도권 4년제’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소를 머금고 언급해주거나 진로하이트의 시장점유율을 올리는 방안에 대한 발표 중 재무제표를 설명하면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이나 질문 사항이 있으시다면, 저희 팀에 재무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그 분이 상세하게 대답



해주실 것입니다.” 식의 딱딱하고 어려운 분위기를 깨는 정도만 해도 효과가 크다. 어느 웹툰 작가의 말처럼 실소(失笑)도 웃음이다.

4. 청중들은 절대로 당신의 발표가 “너무 짧았다”고 불평하지 않는다.

언젠가 어떤 연사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청중들은 당신의 발표에서 단 세 가지 메시지밖에는 들을 수가 없다.”고. 내가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읊는다고 해도 그들이 다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다. 발표에서 간결성은 그만큼 중요하다. 청중들에게 세 가지 메시지를 전달한다면, 오프닝, 본문, 클로징 때 임팩트 하나씩 전달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발표는 지식 뽐내기도, 내가 무엇을 했는지 구구절절하게 설명하는 자리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내용을 청중들에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느냐 일뿐. 이 글에 공감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 더 이상의 설명은 생략하겠다!

5. “절대 왕도”는 없다.

다시 한 번 강조하겠다. 발표에서 중요한 것은 내용을 청중들에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지 그 방법에 대한 고민이지 앞서 말한 몇 가지 규칙 또는 제안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 많은 순간 임기응변이 필요하다. 농담이 낄 자리가 없는 발표에 농담을 찾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넌센스이고 어느 정도의 발표시간을 원하는 자리에서 간결성을 내세워 내용을 자르는 것 역시 맞지 않은 일이다.

사실 발표에 정답이 어디 있을까. 나만의 방식으로 자신감을 앞세워 한다면

분명 그 발표는 성공적일 것이다. 남들 앞에 서서 발표할 때 그 묘한 긴장감과 주목 받는 것을 은근히 즐기는 나도 발표 전에는 항상 떨리고 발표 후 역시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목소리의 톤, 발음, 속도, 호흡 같은 기초적인 것도 흔들리기 일쑤다. 그렇지만 ‘나는 발표에 능하다’고 자기최면을 걸고 자신감 있게 내 발표를 준비하고 진행한다면 좋은 발표를 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감히 이래라 저래라 할 위치의 사람의 글이 아니지만 끝까지 글을 읽어주어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마치겠다.



[핵심역량 강화 노하우]

K-CESA를 활용한 나의 핵심역량 강화 스토리

전자공학과 09 황용하

1. 대인관계 역량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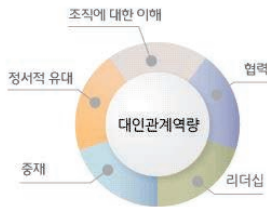
□ 대인관계 역량이란?

서로 배경이 다른 동료, 선배, 후배 등 다양한 인간관계와 사회적 상황 속에서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하고 역할을 수행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 대인관계 역량 진단평가 도구는?

이 진단평가의 목적은 대학을 졸업하고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대인관계 역량과 사회성을 측정하여 대학생의 대인관계 역량 제고를 위한 자기개발 가이드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 대인관계의 하위 구성요인 및 설명



구성요인	요인설명
정서적 유대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여 신뢰와 친밀감을 형성하여 다양한 배경을 지닌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능력
협력	조직의 일원으로 참가하여 그룹의 목표 달성에 공헌하고 그룹 내 다양한 배경을 가진 구성원들과 협력하는 능력
중재	나와 다른 사람 혹은 다른 사람들 간의 의견차이나 갈등을 원만하게 조정하여 합의를 이끌어 내는 능력
리더십	자신의 의견과 의도를 영입화하고, 남을 설득시키고, 기존의 절차나 정책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도전하기 위해 자기 의견을 전달 표현할 수 있는 능력
조직에 대한 이해	조직 수행 절차를 이해하고, 조직 수행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을 파악하여 그 효과를 예측 평가하며, 업무수행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존 시스템을 변화시키거나 새로운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

이번 KCESA(Korea Collegiate Essential Skills Assessment)를 진행하면서 나의 핵심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었던 검사는 대인관계 역량 검사였다. 이 검사는 사람 사이의 관계와 사회생활 가운데서 자신의 능력이 어떠한지보다 객관적으로 검사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지적과 개선에 방향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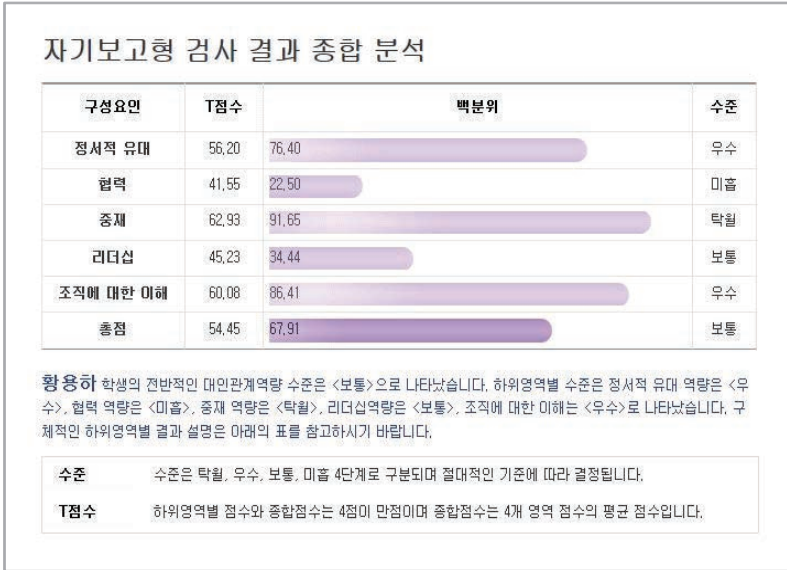
고등학생 때 까지는 대인관계의 중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였던 것 같다. 학교에 항상 함께 있었고, 나와 성격이 맞는 친구들끼리 어울려 친해졌으며 대입을 위해 공부하는 싸움은 순전히 자신과의 싸움이였다. 하지만 대학생은 달랐다. 많은 사람들과 만나며 스스로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했고, 처음 보는 사람들과도 팀을 구성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의견을 조율해야 하는 일이 빈번하였다.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였다. 3년간 중소기업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며 느낀 점은 회사도 사람 사는 곳이라는 점이였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해야 했으며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는 각자 맡은 부분에 책임을 지고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임해야 했다. 각자의 일이 하나의 프로젝트로 완성이 되기 위해선 협력과 중재가 필요했고 누군가는 리더십을 발휘하여 프로젝트를 이끌어 나가야 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톱니바퀴처럼 잘 돌아갈 때 회사가 잘 운영될 수 있었고, 이는 곧 사회생활 또한 자신의 대인관계 역량과 관계가 깊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이번 방학에는 대기업 인턴을 앞두고 있다. 2학년 때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 굉장히 감사하면서도 아직 여러 가지 부분에서 모자란 점이 많아 좋은 기회를 덧없이 흘려보낼까봐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이번 KCESA test에서 대인관계 역량에 관한 검사를 주의 깊게 진행하였고 그 결과를 통하여 나의 부족한 부분을 찾고 채울 수 있는 나만의 노하우를 찾고자 노력하였다.



2. 대인관계 역량 결과



어떠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선 그 문제에 관한 정확한 진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제가 무엇인 지 정확히 파악하여야 그 부분의 수정을 통해 진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등학생 때 책상에 오래 앉아있는 친구 중 공부 시간에 비례하지 않는 성적이 나오는 친구가 있었다. 그 친구의 문제점은 자신이 아는 부분과 모르는 부분을 구분하여 공부하지 않는다는 점이 었다. 아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공부하고 모르는 부분은 자신이 없다 하여 자꾸 핑계를 대며 뒤로 미루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 항상 시험을 보면 성적이 제자리걸음 일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 이러한 간단한 일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문제점의 정확한 파악과 그 부분의 수정을 통하여 자신의 핵심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의 검사 결과를 받아 보았을 때 약간은 당황했었다. 그 이유는 협력에 관한 핵심 역량이 그 어떤 부분보다도 낮게 나타났기 때문이었다. 처음에는 이 결과를 부정하였었다. 왜냐하면 내 성격은 유(流)한 성격이고, 다른 사람을 많이 배려하는 성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협력 관계에서 나의 모자란 점들 파악되었었다. 그리고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납득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이유는 내가 다른 사람과 협력을 잘 하려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이다. 내 성격은 분명 부드럽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은 정서적 유대 또는 중재 부분에서 탁월하게 나타난다. 하지만 어떠한 일을 진행할 때 나는 일을 이분법적으로 분리해버리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각자 자신이 맡은 임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물을 취합하는 방식으로 일을 진행하고, 각자 맡은 부분에 있어서는 자신이 책임을 져야하며 거의 상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그런 방식이 그 사람의 일을 배려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러한 나의 태도를 이번 검사를 통해 재고해 보았다. 협력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도와주는 협조와 타인의 힘을 합하여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협동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고 한다.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서로 힘을 합하여 도움을 요청해가며 일을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나의 태도는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함 보다는 개인의 역량 강화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나쁘게 말하면 방관 쪽에 가까웠던 태도였던 것 같다. 이러한 검사 결과는 나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수정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3. 대인관계 역량 분석을 통한 핵심역량 강화 노하우

내가 제시하는 대인관계 역량 강화 노하우는 타인에게 베푸는 삶을 사는 것이다. 어떤 것이든 좋다. 물질적인 것도 좋고, 지식적인 것도 좋다. 어떠한 것이던지 다른 사람에게 먼저 베풀고 그것을 통해 자신이 얻게 되는 점에 관해서 느끼고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의 일이었다. 나와 다른 팀원 둘이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라는 지시를 받고 제품 개발에 착수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둘 다 필요한 개발이었고 우리는 각자 내가 하드웨어, 팀원이 소프트웨어로 역할을 분담해서 일을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처음에는 서로 관여할 일이 별로 없을 것이고 자신이 맡은 부분만 성실히 수행하여 구현하면 된다고 생각하였다.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로 분야를 나누었고 내가 하드웨어만 잘 개발해서 넘긴다면 나머지 문제는 소프트웨어 쪽에서 알아서 처리할 문제라고 선을 그어버렸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개발은 난항에 난항을 거듭했고 일은 잘 진척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첫째, 서로 협력을 하지 않아 비효율적으로 일이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하드웨어를 개발하고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동작에 관한 간단한 코드를 짜서 테스트를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내가 이 모든 테스트를 끝내고 하드웨어만 넘겨주었기 때문에 팀원은 다시 한 번 내가 작성한 소스코드를 작성해야 하는 일이 생겼다. 일이 중복되어 진행 된 것이다. 이러한 일 때문에 낭비되는 시간이 상당하였다.

둘째는 스스로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나는 프로젝트에서 하드웨어 개발을 맡았지만 분명 팀원보다 각 모듈의 샘플코드를 구성하는 데 더 능숙했고, 팀원은 소프트웨어 개발을 맡았지만 하드웨어 개발 경력이 나보다 더 많아 예러 상황 처리에 더 능숙하였다. 하지만 이런 점을

서로가 대강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성장하고 더 많이 배우고 싶다는 생각에 서로의 의견과 지식을 잘 공유하지 않았다.

훗날 개발 완료 시점에 가까워 왔을 때 우리는 서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식과 의견을 공유해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완수하기에 이르렀고, 그 과정에서 서로에게 각자의 지식을 가르쳐줌으로 인해 가르치는 사람이 더 많이 배운다는 점을 몸소 깨달을 수 있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 라는 말이 있다. 사람들과 살아가는 사회적 동물인 인간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사회생활을 해야 한다. 그리고 더 나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공동의 목표를 설정해야 하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번 KCESA를 통해 나의 문제점을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리고 내가 경험했던 일에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통해, 앞으로 있을 여러 사회생활 및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관해 알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



장려

- **A+가 골라들어오게 하는 기적의 학습법**
 전자과 09 박인성
- **k-cesa를 기초로 한 역량개발계획 수립 및 실천방법**
 심리학과 11 이정혁
- **짧고 굵게 공부하는 3, 5, 7, 9 공부법**
 e비즈니스과 10 전수민
- **성공적인 학점 관리, 리포트와 조별과제로부터 시작하자**
 정치외교학과 11 홍성은



2014 학습법 공모전 수상작 모음집





[나의 학습 노하우]

A+가 굴러들어오게 하는 기적의 학습법

전자과 09 박인성

서 론

과 수석 및 매 학기 학점 4.5를 받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필자는 과 수석 및 매 학기 모든 과목에서 올 에이 플러스를 받기 위해 1,440시간의 법칙을 사용하였다. 1,440의 법칙이란 하루 16시간씩 한 학기 동안 1,440시간을 공부하여 매 학기마다 좋은 성적을 거둔다는 법칙이다. 4과목을 4시간씩 15분 단위로 관리하며 공부시작 15분 전, 한 과목을 15분씩 나눠 4시간을 계획하여 공부하였다. 한 과목의 공부가 끝난 뒤에 다시 15분 동안 계획을 세워 같은 방식으로 공부하였다. 한 학기가 끝나고 난 뒤 1,440시간의 법칙이 실현되어 있다면, 그 어떤 사람이더라도 우수한 성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하지만 이러한 1,440시간의 법칙을 실현시키기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과 끊임 없는 동기부여가 필수이다. 즉, 공부에 대한 동기부여만 있다면, 노력은 자연스럽게 뒤따라올 것이다. 필자는 내 자신 스스로에게 공부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나는 할 수 있다.’ 라는 마인드 컨트롤과 한 학기가 끝난 뒤 4.5를 받는 내 자신을 상상하여 공부에 대한 열정을 끌어올렸다. 이렇게 한 학기, 한 학기 1,440시간의 법칙을 사용한 결과, 현재 필자는 전자과

378명 중 수석을 하고 있고, 누적 평점이 4.46을 받고 있다. 1,440시간을 실현시키기만 한다면 여러분 모두 좋은 성적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본 론

1. 독하게 공부하기 위한 나만의 동기부여 방법

과 수석 및 매 학기 학점 4.5를 받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필자는 과 수석 및 매 학기 모든 과목에서 올 에이 플러스를 받기 위해 1,440시간의 법칙을 사용하였다. 1,440의 법칙이란 하루 16시간씩 한 학기 동안 1,440시간을 공부하여 매 학기마다 좋은 성적을 거둔다는 법칙이다. 하루에 4과목을 4시간씩 15분 단위로 관리하며 공부시작 15분 전, 한 과목을 15분씩 나눠 4시간을 계획하여 공부하였다. 한 과목의 공부가 끝난 뒤에 다시 15분 동안 계획을 세워 같은 방식으로 공부하였다. 한 학기가 끝나고 난 뒤 1,440시간의 법칙이 실현되어 있다면, 그 어떤 사람이더라도 우수한 성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하지만 이러한 1,440시간의 법칙을 실현시키기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과 끊임없는 동기부여가 필수이다. 즉, 공부에 대한 동기부여만 있다면, 노력은 자연스럽게 뒤따라올 것이다. 필자는 내 자신 스스로에게 공부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나는 할 수 있다.’ 라는 마인드 컨트롤과 한 학기가 끝난 뒤 4.5를 받는 내 자신을 상상하여 공부에 대한 열정을 끌어올렸다. 이렇게 한 학기, 한 학기 1,440시간의 법칙을 사용한 결과, 현재 필자는 전자과에서 과 수석을 하고 있고, 누적 평점이 4.46을 받고 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들도 자신의 가슴을 꿰뚫어 주는 무엇인가가 분명 있을 것이다. 공부하고자 하는 열정을 주는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생각하라! 시간이 흐르는 것도 느끼지 못하는 자신을 관찰할 수 있을 것이다. 1,440시간의 법칙을 실행할 수 있는 동기가 있고, 실행한다면 여러분 모두 좋은 성적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II. 나의 전체적인 공부 전략, 관리 및 흐름

이 Part에서는 한 학기 전체적인 공부 전략, 관리 및 흐름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다. 한 학기는 생각보다 굉장히 길다. 한 학기 당 평균 100일. 즉, 이 100일을 잘 활용하는 사람만이 그 학기의 승자가 되는 것이다. 필자는 공부를 마라톤에 비유하고 싶다. 42.195Km의 긴 거리를 달리는 마라토너에게 호흡 관리는 필수이다. 호흡 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하면 그 마라토너는 완주할 수 없듯이, 한 학기 동안의 공부도 마찬가지다. 한 번 흐름을 잃어버리면 영원히 잃어버리고 그 학기를 버리게 될 수도 있다. 그러면 한 학기의 호흡관리 즉, 흐름을 잘 타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필자는 달력식 플래너를 사용하는 것을 강력 추천한다. 달력식 플래너는 1,440시간의 동기부여, 흐름 등을 파악하는 핵심이다.

(필자가 사용하는 달력식 플래너 첨부)



달력식 플래너는 위와 같은 모양이다. 필자는 각각의 날짜에 그 날 학습해야 하는 과목이 무엇인지 정리하였다. 그리고 이 달력식 플래너를 덮지 말고 위의 상태로 펼쳐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달력식 플래너를 펼쳐 놓음으로써, 꾸준히 그 날 목표를 끊임없이 생각할 수 있고, 공부 페이스를 조절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공부 시작 전 15분 동안 계획을 짜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플래너에 계획을 세울 때, 가장 기한이 짧은 과제나 급한 공부를 먼저 목표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1,440시간의 법칙을 실행하고 있다면 급한 공부를 할 기회가 없겠지만, 효율적이고, 능률 극대화를 위해서 계획을 세울 때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필수이다. 플래너에 적힌 계획은 잠을 줄여서라도 무조건 달성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조금씩 조금씩 밀려 1,440시간이 채워지지 않고 절대 최종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달력식 플래너의 또 하나의 장점은 한 달의 계획을 한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눈으로 한 달의 계획을 보면 자신의 공부 속도, 페이스를 쉽게 조절할 수 있다. 일반 플래너와는 전혀 다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하나의 전략은 자신이 사용한 연습장을 절대 버리지 말고, 간직해야 한다는 것이다. 필자는 그동안 사용한 연습장이 쌓여 있는 모습을 공부 중간 중간 보며 굉장히 뿌듯해했다. 이러한 동기부여 뿐 만 아니라, 전공과목의 경우 내용이 한 학기 동안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을 다시 찾아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필자의 경험에 따르면 한 학기가 끝나는 순간 약 12권의 연습장(2,000원짜리 줄 연습장)이 쌓여 있는 것을 경험하였다.

이번 Part에서는 1,440시간의 법칙의 핵심인 공부계획 세우기, 계획 운영 하기에 대해 알아보았다. 아무리 열정적으로 한 학기 1,440시간을 공부한다 해도 계획이 없이 공부하면 절대 목표를 성취할 수 없다. 반드시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계획이 있어야 공부 페이스를 조절하며 목표를 달성



할 수 있다. 모두 달력식 플래너와 12권의 연습장을 준비하였는가? 그럼 당신은 아주 효과적으로 1,440시간의 법칙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것이다.

Ⅲ. A+를 위한 세부 전략

1. 전공과목 공부 방법

전공과목은 각각 사람이 전공에 따라 다르다. 필자는 전자를 전공하고 있기 때문에 필자의 전공 위주로 설명해보자면, 전자과 공부 특성상 암기보다는 이해가 매우 중요한 전공이다. 그렇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 이해하기 보다는 학기 전에 사 놓은 줄 없는 연습장 10권을 효과적으로 사용해야한다. 이 공책을 사용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로로 이 공책을 사용하는데 이러면 공간의 효율이 별로 좋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필자는 가로로 사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이렇게 사용하다보면, 모서리의 작은 부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전공과목의 특성상 한 과목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그 다음의 고급 과목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기초 과목부터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수님의 설명을 정말 빠짐없이 듣고 이해해야한다. 전공과목의 경우 모르는 것이 있으면, 인터넷에서 찾는 것보다는 교수님에게 직접 찾아가서 질문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인터넷에는 틀린 정보도 많을뿐더러, 자세한 설명이 있지 않아 이해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교수님의 설명을 하나도 빠짐없이 듣기 위해서는 수업시간에 녹음한 것을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필자가 경험한 바로는 녹음 파일을 듣고 공부하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은 전공에 대한 이해력 자체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필자는 녹음 파일을 적극 활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전공과목과 교양과목 모두 녹음파일을 듣고 공부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전공과목만큼은 반드시 녹음 파일을 활용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녹음 파일 사용하고, 어느 정도의 노력이 있다면, 그 어떤 사람보다 더 전공에 대한 이해력을 가질 수 있다고 확신한다.

2. 교양과목 공부 방법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양과목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교양과목을 무시한다면 절대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없다. 주변 동기를 보더라도 교양 과목은 시험 전 2~3일 전 벼락치기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전에 조금만 더 준비를 한다면 상대적으로 적은 노력으로 더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다. 교양과목은 전공과목과는 다르게 조금만 방심하고, 복습할 때를 놓친다면 공부할 양이 전공과목에 비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심적인 부담감이 심해져 다른 과목을 공부할 때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필자는 교양도 시험보기 한 달 전부터 공부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교양과목은 암기해야 할 양도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본인이 단기 암기를 잘 못한다고 생각한다면 더더욱 일찍, 일찍 준비해야한다. 나만의 암기 팁이 있다면, 컴퓨터 타이핑을 이용하여 암기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직접 손으로 써서 외우는 것도 효과적이지만, 교양과목의 경우 암기할 양이 매우 많기 때문에 그 많은 양을 다 쓰다 보면 손도 아프고 지겹기 때문이다. 하지만 컴퓨터 타이핑을 이용해서 암기한다면, 암기 속도도 훨씬 빨라질 뿐만 아니라, 컴퓨터를 이용한다는 것만으로도 약간의 지루함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암기가 더 잘 된다. 이렇게 컴퓨터 타이핑을 이용하여 암기를 하였으면, 마



지막 마무리는 손으로 적어 정리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험을 볼 때에는 컴퓨터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손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손에 감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위에서 언급한 1,440시간의 법칙과 위와 같은 암기 방법을 사용한다면, 교과과목에서도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3. 리포트 작성(과제) 방법

사실 과제는 우리를 매우 귀찮게 하는 존재이다. 하지만 과제를 제대로 활용한다면 그 과목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 과제는 절대 미루면 안 된다. 과제가 제출되는 그 순간부터 과제를 시작해야 한다. 한 과목에서 과제가 차지하는 비율도 절대로 무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역시 성실히 해야 하는데, 특히 전공과목의 과제인 경우 우리가 모르는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경우도 많을뿐더러, 계산이 복잡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과제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는 모르는 문제는 교수님께 여쭙보고, 풀어서 좋은 점수를 받아야 한다. 또한, 보고서의 경우에는 최대한 깔끔하게 작성해야하는 것도 필수이고, 남들과 다른 차별화 되는 내용이 있어야한다. 차별화 되는 내용도 도서관에 직접 가서 관련된 책의 내용을 적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적어도 필자의 경우는 도서관에서 책을 찾아 직접 기입한 내용을 가지고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 결과 모든 실험과목에서 A+를 받기도 하였다. 즉, 최대한 깔끔히 정리하고, 다른 사람과 다른 차별화 된 내용으로 보고서를 작성한다면, 보고서 점수 역시 잘 받을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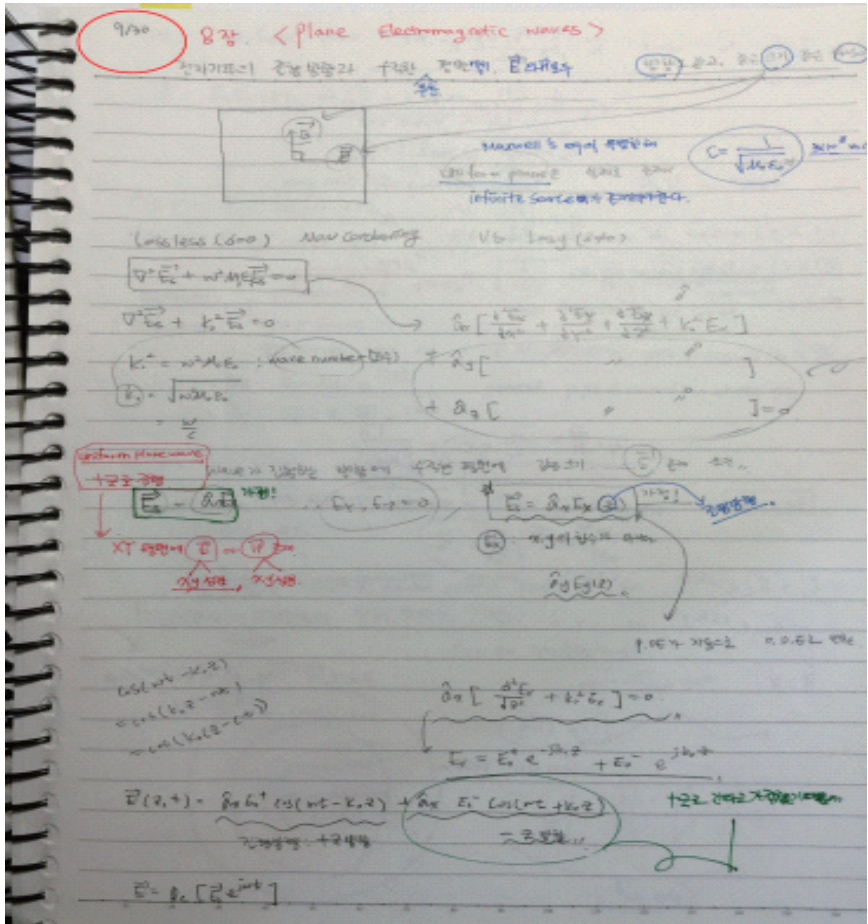
결 론

지금까지 필자가 제안하는 공부 방법을 살펴보았다. 많은 사람들은 필자의 1,440시간의 법칙을 비웃기도 하고, 놀랍게 쳐다보기도 하였다. 1,440시간의 법칙은 단순히 학점 4.5를 만들어주는 법칙이 아니다. 여러분의 전공지식의 기초를 단단하게 쌓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도구이다. 전공지식의 기초가 쌓이고 쌓이면, 전공심화과목도 어렵지 않게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1,440시간의 법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지 많은 양의 공부 시간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관리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사회에 나가서도 절대 자기 자신을 관리할 수 없다. 엄격한 자기관리를 해본 사람만이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하여서도 방황하지 말고 자기 자신의 길을 개척하며 꾸준히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은 길 잃고 방황하는 자가 되겠는가 아니면 개척하는 자가 되겠는가? 여러분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렸다.



☆ 부 록

☆ 필자가 작성한 노트 필기 사진 및 리포트



위 사진은 2013년도 2학기 전자장론을 정리한 필기 노트이다 왼쪽 상단을 보면 날짜가 적혀있는 것을 볼 수 있다.

2. Experiment¹⁾

Date	$V_{GS} - I_D$	$V_{DS} - I_D$	Al Evaporation	
			Velocity [Å/s]	Thickness [kÅ]
1st Experiment (9/22)			40~50	2.1
2nd Experiment (9/29)			50~60	1.8
3rd Experiment (10/6)			50~60	1.7

Table 1. All results of Current characteristics of ZnO and the velocity, thickness of Al²⁾

We experienced three times in all. By comparison of $V_{GS} - I_D$ and $V_{DS} - I_D$ graph, we can



evaporating Al with proper thickness is an important factor...

Second, indium soldering is needed to be small and clean to protect ZnO from short-circuited. It is the most important process in making ZnO TFT. When there is a short-circuit because of a big size indium, gate and drain will be tied and ZnO TFT does not work well. Indium soldering on the wafer was harder than on the glass. So we heated the wafer for a space before soldering on the wafer. It helps to make indium indurate and stay it longer. To make this process easier, we made PR area bigger when we cover ZnO with PR solution. ...

Third, Two wire bondings in one transistor are needed to maintain an interval. There is a thin line in the middle of the wafer to separate a drain from a source. So when we made a drain and source, we kept some distance not to be drain and source tied...

So, we had been care about these three factors and finally we can get the better results at the third experi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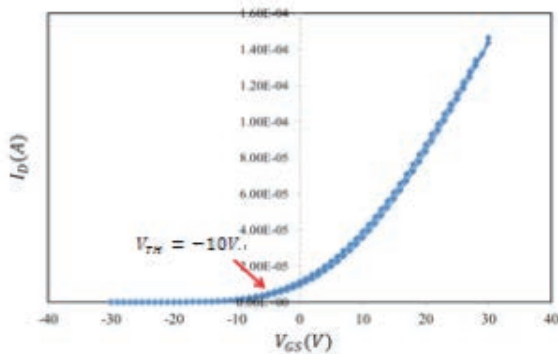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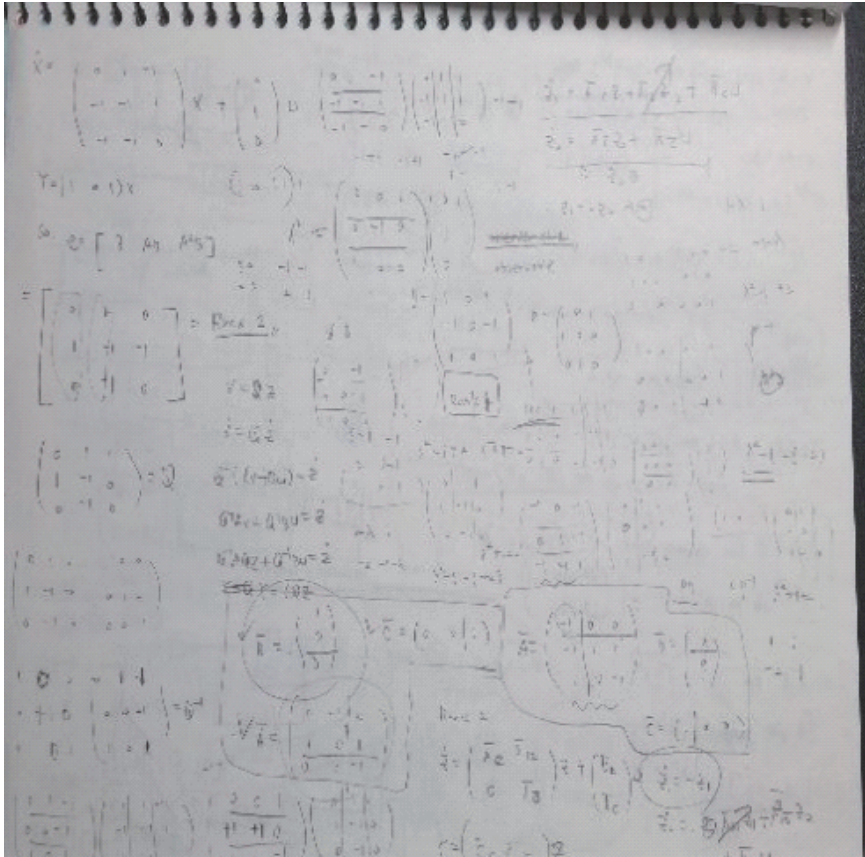


Figure 2. Drain currents of ZnO TFT.

위 그림은 2014년도 1학기 필자가 수강한 전자종합설계에서 작성한 보고서이다.



위 그림은 2013년도 2학기에 필자가 수강한 현대제어 과목을 공부한 연습장이다.



[핵심역량 강화 노하우]

k-cesa를 기초로 한 역량개발계획 수립 및 실천방법

심리학과 11 이정혁

아주대학교 학생이라면 매년 2학기 중간고사 준비가 시작될 무렵 교수학습 개발센터로부터 'K-CESA'에 대한 참여문자와 메일을 받을 수 있는데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아직도 많은 학생들이 모르는 대학생 핵심능력평가에 대해 간단히 적어보겠다. 대학생 핵심능력평가는(이하 K-CESA) 교육부와 한국 직업능력개발원에서 개발하고 실시하는 평가로써 총6개 항목으로 나누어 대학생이 갖춰야할 역량과 능력의 수준을 평가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검사이다. 우리학교의 경우 응시료 5만원을 학교에서 전액 지원해주고 있으며 6개 항목에 대해 전부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자부담과 일부항목만 응시하는 학교도 다수 있다.)

대학생에게 1년의 시작은 설렘과 기대, 걱정과 함께 다양한 목표를 가지고 출발한다. 많은 학우들이 1년의 시간을 허무하게 보내기는 싫지만 그렇다고 어떤 것을 할지 감을 잡을 수 없어 혼란해 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는데, 그런 고민을 K-CESA를 통해 쉽게 해결할 수 있다면 믿을 수 있을까? 지금 부터 2013년 K-CESA를 통해 나온 결과를 가지고 이번 년도 계획을 실천 해온 나의 이야기를 시작한다.

우선 많은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수립하는 연간 계획으로 ‘어학능력향상’이 있다. K-CESA에서는 이를 ‘글로벌 역량’으로 통칭하고 있으며 세부 항목으로 1. 유연성 및 적극성, 2. 타문화에 대한 지식 및 이해, 3. 글로벌화 및 글로벌 경제에 대한 이해가 있다. 우리가 보통 어학을 생각하면 TOEIC과 OPIC등만 생각하지만 기업에서 원하는 글로벌 형 인재와 토익점수가 높은 학생과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 이유로 최근 많은 학생들이 토익평균 800점을 넘기고 있는 현실이고 학생들은 나름의 변별력을 갖추겠다며 토익 스피킹과 타 어학시험만 준비한다. 정리하자면 어학능력향상을 위해 누구나 다 하는 토익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여기에 K-CESA에서 요구하는 하위 항목을 더한다면 남들과 차별성을 가질 수 있다는 말이 된다. 실제로 하위항목 2와 3은 국제경제와 사회에 대한 관심을 평가하는 항목으로 기억나는 문항으로는 4대문명에 대한 문제와 국제 스포츠 경기에 대한 질문들이 있다. 작년 우수 등급을 받은 나는 ‘글로벌화 및 글로벌 경제에 대한 이해’부분이 나에게 부족한 점을 파악하였고 올해 영어신문을 구독하여 독해능력 향상과 국제흐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한 가지 팁을 더하자면 매일 아침 6시에 EBS에서 하는 영어회화를 듣는 것만으로도 듣기 능력 향상과 다양한 글로벌 이슈를 접할 수 있다. 그 결과 올해는 작년 보통 등급이던 3번 영역을 탁월애 가까운 수치로 끌어올렸고 총점을 ‘탁월’ 등급으로 올릴 수 있었다.

다음 자기개발 부분으로 ‘자기관리역량’과 ‘적극성 검사’를 들 수 있다. 두 부분은 직업에 대한 이해와 개인 성향을 알아볼 수 있는 부분으로 ‘자기관리역량’을 통해 자기 주도적 학습역량과 정서적 자기조절, 계획수립 실행, 직업 의식 등에 대한 나의 역량을 알 수 있다. 나의 경우 작년 자기관리 역량에서 보통을 받아 제일 낮은 수치를 기록했었고 그를 위해 효과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방법과 새로운 취미를 통해 정서를 조절하는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올해 우수등급으로 1단계 상승시킬 수 있었다. 외적으로 나는 앞으로 제일 낮은 등급을 받은 직업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회진출센터에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직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경기중소기업 지원센터 아르바이트를 통해 다양한 직업을 체험해 볼 계획이다. 적극성검사의 경우 아주대학교는 기본형인 자기보고형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변 학우들의 평가를 보아 대부분의 학우들이 ‘탁월’등급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총점이 탁월이라고 하더라도 세부 항목의 T점수와 백분위 점수를 분석해서 상대적으로 부족한 부분의 역량을 찾아 위 직업의식역량 개발을 위해 내가 준비하는 것처럼 자신에게 맞는 자기개발활동을 탐색·실행한다면 다음 년도 검사에서는 보다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기보고형 검사에 대해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인지적 능력 검사도 실시하는 종합 형3판으로 평가해보아 보다 정확한 내 능력이 측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아마 많은 학우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나와 같이 연간 계획에 다양하게 활용한다면 이에 대한 지원이 더욱 늘어나 보다 질 좋은 검사를 할 수 있게 되리라 생각한다.

다음 역량으론 ‘의사소통역량’이 있다. 이 부분에서는 듣기와 읽기쓰기, 말하기, 그리고 토론과 조정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데 직업능력평가원에서 이렇게 애매한 측정이 될 수 있는 문항은 객관식과 주관식, 직접 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어 보다 정확한 측정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다. 처음에는 전화연결을 통해 말하는 방식이 상당히 어색하기도 하지만 평가를 준비하고 실행하는 내 모습을 생각했을 때 마치 입사시험을 치루는 듯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실시했었던 것 같다. 의사소통역량의 경우 많은 기업에서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취업이 아닌 사회를 살아가며 우리가 키워야 할 역량이기에 측정된 점수를 바탕으로 보다 세밀한 계획수립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할지 모른다면 종합분석점수 밑에

‘하위영역별 결과’부분을 통해 자신이 어느 정도 수준을 가지고 있는지 대략적으로 말해주며 어떤 부분의 역량을 개발하라고 조언해주고 있으니 이를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다. 참고로 의사소통역량 평가와 다음 설명할 종합적 사고력은 평가 후 점수를 알기까지 약 3주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다음으로는 ‘종합적사고력’부분이다. 이 평가를 쉽게 설명하자면 하나의 논술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 문항에 있어 작년과 같거나 상당히 유사하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그 때와는 전혀 다른 답을 적었던 것 같다. 기본적으로 K-CESA에서는 기성세대와 신세대간의 갈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사회 이슈가 되었던 주제들을 문항으로 출제하며 개인의 역량을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2명의 심사위원이 교체체점을 하여 신뢰도를 높인다고 한다. 논술에 대해 얼마나 객관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제한된 분량과 시간을 기본적으로 준수하고 기성세대와 신세대간의 갈등을 3개 이상 서술하라는 형식의 주어진 형식을 준수한다면 높은 점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글을 쓰는 것에 어려움이 느낀다면 ‘내가 이 글을 잘 써서 높은 점수를 받아야지’라는 생각보다 ‘이 글을 통해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알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보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임한다면 본인의 부족한 부분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자원정보기술의 활용역량’부분이다. 사실 작년 같은 경우 이 부분이 가장 어려웠던 평가항목으로 기억된다. 자원 활용역량, 정보 활용역량, 기술 활용역량 이렇게 3가지 하위항목을 측정하는 마지막 부분은 실제 회사에 입사해서 평가될 수 있는 나의 역량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항목이다. 기본적으로 컴퓨터에 오류가 생겼을 때 대처하는 항목과 주어진 기기와 자료를 통해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방법, 그리고 다양한 사무기기를 작동하는 방법과 문제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들을 물어보며 회사생활을 하는 전반적인 능력을 평가하기 때문이다. 이 부분이 어려운 이유는 정확히 정답이 정해져



있기 때문인 것 같다. 사실 논술이나 말하기의 경우 나의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면 되었고, 적당한 설득력을 갖춘다면 높은 점수를 기대할 수 있지만 내가 만약 기기를 잘못 다룬다면 아무리 그럴 듯 해 보이는 답이라도 틀린 답이 되기 때문이다. 나는 이 역량 강화를 위해 근로장학을 하며 한 가지 습관을 길렀다. 복사를 하거나 팩스를 하는 단순한 업무부터 프린트기에 종이 걸렸을 때 내가 먼저 나서서 고치기 위해 시도해보았으며 다소 어려워 보이는 사무기기의 고장에도 담당 직원과 함께 들여다보는 습관이 그것인데 결과적으로 1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근로지에서는 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때 나를 제일 먼저 찾게 되었으며 이번 K-CESA 평가에서도 탁월 부분으로 2단계 상승시킬 수 있었다.

물론 K-CESA 평가 자료도 인간이 개발한 도구이고 정확한 측정을 한다고 말할 수만은 없다. 그러나 내가 들어본 이야기로는 이와 비슷한 평가도구가 대기업을 중심으로 개발되어 입사시험의 일부로 측정되고 있으며 단순히 학점과 스펙을 떠나 직접 도구를 다루고 자율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다방면의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인재를 원하는 기업들은 K-CESA와 같은 평가를 더욱 늘릴 것이라고 한다. 현재 K-CESA의 경우 대학생들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인지 조금 쉬운 난이도로 출제되고 있는 것 같지만 충분한 생각과 자신의 주관을 가지고 있어야 해결 가능한 문제들이다. 처음 시작할 때는 귀찮기도 하고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검사를 끝까지 완료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자료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으며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1년 계획의 기본 틀로 삼는다면 보다 효율적이고 알찬 계획수립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무엇보다 계획의 수립과 그에 대한 결과에 있어서 꾸준한 피드백과 평가, 자문이 필요하다. K-CESA는 1년에 한번 씩 측정함으로써 자신의 성장 과정을 대략적으로 알아볼 수 있고 정보를 가지고 사회진출센터와 교수학습

지원센터를 방문하면 최소한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나같은 경우 한국직업
능력개발원에 직접 전화를 걸어 최근 대학생들의 취업 및 자기개발 추세를
알아보며 내 계획을 세우니 보다 효과적인 활용이 가능하다. 아무쪼록 많은
학생들이 K-CESA를 통해 알찬 계획수립과 효과적인 역량개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실천하기를 바란다.



[나의 학습 노하우]

짧고 굵게 공부하는 3, 5, 7, 9 공부법

e-Business과 10 전수민

안녕하세요. 아주대 e-Business학부에 재학 중인 전수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51회 세무사 시험에 합격하여 짧았지만 굵었던 1년 3개월의 공부 여정에 마침표를 찍게 되어 나름의 제 공부 노하우를 아주인들과 공유하고 싶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각자 공부하는 스타일이나 생활패턴이 다르지만, 제가 만약 다른 자격증을 위하여 공부한다고 하더라도 이 학습법에 따라 공부하고 계획할 것이며, 단기간에 목표 점수를 얻을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 만큼 어느 시험이든 3,5,7,9 공부법을 적용하면 짧고 굵게 공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3, 5, 7, 9 공부법은 시험 당일까지 막연하게 계획하여야 하는 생활 패턴이나 공부시간, 휴식시간 등에 대한 전체적인 큰 틀의 계획을 짜는데 도움을 줍니다. 3은 이론 공부의 3일 중첩, 3회독을 의미하고, 5는 주 5일간의 공부, 7은 문제풀이 회독 수, 9는 하루 동안의 순 공부시간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로 3,5,7,9 공부법 중 3은 이론 공부의 3일 중첩, 3회독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자격증 시험의 공부 패턴은 이론 공부→문제 풀이→시험 전

마무리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저는 이론 공부 기간을 집의 기초부터 뼈대, 외부 형태를 짓는 것이라고 하면 문제 풀이는 집 내부의 인테리어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뼈대를 잡으며 전체적인 기본기를 다지는 이론 공부이며 이를 위하여 3일 중첩 & 3회독으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먼저 오전 시간동안 학원 강의나 인터넷 강의로 하루 공부 분량의 수업을 듣습니다. 처음 수업을 듣는 것이라면 내용이나 개념이 생소하여 그 내용들이 마음에 잘 와 닿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처음 세법 강의를 수강하였을 때 수업이 끝날 때쯤이면 머리가 멍해져 있었습니다. 처음 듣는 용어에 겁먹을 뿐만 아니라 이걸 내가 이해 할 수 있을까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후부터는 그 날 배운 내용에 대한 복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내용을 이해하기 보다는 개념에 익숙해지고 앞으로 사용 할 용어를 눈으로 읽고 손으로 쓰며 친숙해지도록 노력했습니다. 오늘 배운 수업의 복습을 끝내면 이틀 전 수업, 하루 전 수업, 오늘 수업을 연달아 다시 읽어 보며 복습했습니다. 다음날도 마찬가지로 3일 간의 배운 내용을 중첩하여 복습했으며 특히 중간 중간 교재의 간단한 연습문제를 풀어 이론과 문제가 어떻게 연결 되는지도 3일간 누적하여 풀어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3일 누적으로 공부를 해나가면 1회독부터 그제, 어제, 오늘 총 세 번 내용을 읽어 3회독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수업 내용의 흐름이 끊기지 않고 연결하여 이해할 수 있고, 겁먹었던 용어나 개념과 어느 정도 친해진 정도를 넘어 임팩트 있게 기억에 남습니다. 이 방법은 제가 고등학교시절 영어단어를 외울 때도 높은 암기 효과를 얻었던 공부법입니다. 이렇게 1회독 이론공부를 끝내면 다음 2회독, 3회독을 통하여 다시 이론을 복습하였고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3일 중첩 공부를 하였습니다. 벽에 페인트칠을 하여 색깔을 낼 때에도 한 번 물감을 칠하면 색이 연하게 칠해지고 그 위에 두 번, 세 번 덧칠을 하면 점점 진하고, 뚜렷한 색을 내듯이 이렇게 3일 중첩 & 3



회독 이론 공부를 마치면 3*3인 9회독을 짧고 굵게 할 수 있어 배운 내용들이 확실히 이해되고, 기억에 남습니다. 이러한 이론 공부법을 다섯 과목에 대하여 적용하였고 약 7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3,5,7,9 공부법 중 휴식시간과 관련된 5입니다. 휴식 시간은 평일 5일간의 공부를 끝내면 주말에 충분히 쉬 수 있도록 계획했습니다. 공부를 한다는 것은 정말 긴 마라톤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결승 지점에 도달하기까지 동일한 페이스를 유지하며 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빠르게 달리면 금방 지쳐 더 이상 달릴 수 없게 될 수도 있고, 너무 천천히 달리면 완주 시간이 많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슷한 페이스로 계속 달리기 위해서는 중간 중간 충분한 휴식으로 에너지를 채워야 한다고 생각했고, 이를 위하여 늦잠을 자거나 가족, 남자친구와 시간을 보내며 일주일간 지쳤던 몸과 마음을 배터리를 재충전 하듯이 충전하여 마감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3,5,7,9 공부법 중 7인 객관식 문제집 7회독을 시작합니다. 저는 이론공부를 끝내고 시중에서 내용이 풍부하고 두꺼운 문제집을 한 권만 골라 모든 문제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고승덕 변호사의 공부법 중 유명한 10회독 공부법이 있는데 10회독은 시간상 하지 못할 것 같아 7회독을 하는 대신 답이 맞든 틀리든 7회 모두 모든 문제를 풀기로 하였습니다. 이론과 실전 문제풀이는 많이 다르긴 하지만 집의 뼈대와 외형을 잘 설계하여 이론을 다졌기 때문에 내부 인테리어인 실전문제는 더욱 빠르고 효율적으로 풀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 때 매 회독시 문제에는 절대 답을 쓰지 않고 따로 답을 체크하는 답안지를 만들어 책에는 표시 없이 문제를 풀었으며, 틀린 것만 체크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체크 표시가 여러 번 되어 있는 문제는 시험에 임박해서 볼 수 있도록 따로 포스트잇을 붙여놓았습니다. 이렇게 객관식 문제집의 1회독이 끝나면 맨 첫 장에 바를 정(正)을 하나씩 그었습니다. 공부하며 재미요소를 찾기 힘든데 한 획 한 획을 그어 바를 정을 완성시킬 때 느

끼는 성취감이 나를 하나의 쏠쏠한 재미로 다가왔습니다. 처음 1,2회독은 조금 더뎠습니다. 그러나 3,4회독을 거칠수록 가속도가 붙고 5회독부터는 엄청난 가속도가 붙으며 6회독,7회독을 할 때에는 문제를 보면 답이 떠오를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시험 3주전까지 7회독을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쯤 이면 정말 많은 자신감이 생깁니다. 시험 3주전부터는 체력관리에 신경을 쓰고 아프지 않게 항상 몸 관리를 잘 하며 최근 기출문제나 모의고사 등을 반복적으로 풀어 봄으로써 실전 감각을 키우고 유지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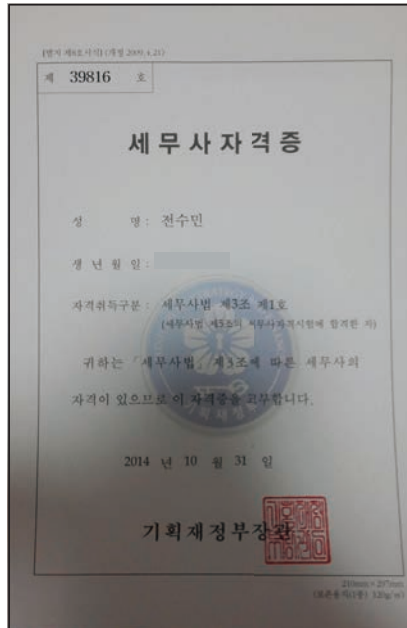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3,5,7,9 공부법 중 9는 공부시간을 의미합니다. 앞에 세웠던 3, 7회독 계획을 지키려면 하루의 공부량이 뒷받침 되어야 하기 때문에 9시간이라는 순수 공부시간을 필요로 하였습니다. 즉, 책상에 그냥 앉아있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로 집중하는 시간을 나타냅니다. 저는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있으면 이런 저런 생각도 많이 나고, 핸드폰도 만지게 되고 졸리면 옆드려 잠도 잤습니다. 따라서 계획한 양을 끝내려면 12시간 이상 앉아있어야 최소 9시간 집중해서 공부를 하여 양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짧고 굵게 공부하려면 그 만큼 하루에 공부하는 시간을 최대한 늘려야 한다고 생각해서 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책상에 앉아 있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심지어 독서실로 가는 준비 시간과 이동 시간이 아까워 집에 가정용 독서실 책상을 하나 마련하여 집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세무사 자격증 공부 카페의 제 닉네임은 ‘눈뜨고 감을 때 까지’입니다. 1년 3개월 공부기간동안 아침에 눈을 뜨고 밤에 눈을 감을 때까지 책상에 앉아있자 라는 나를 저 만의 각오를 스스로에게 계속 주입시키기 위해 이렇게 닉네임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평일의 제 공부시간은 순수 9시간을 지키도록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1년 3개월을 공부했고 짧고도 긴 여정동안 나름의 성숙의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돌이켜 보면 학습 전략도 중요하지만 항상 요동치지 않는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고, 힘든 시기에도 흥미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공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전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공부할 때에는 타이틀 없이 계획할 때만 참고하려고 생각했던 3,5,7,9 숫자들이 이렇게 하나의 주제로 연결될 수 있게 되어 이번 에세이를 쓰면서 저만의 방식에 3,5,7,9 공부법이라는 이름을 얻은 것 같아 즐거운 글쓰기 시간이었습니다. 자격증 시험이 아니더라도 학교 공부, 토익 시험등 목표로 하고자 하는 공부에 이 공부법이 참고가 되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전수민 학생의 세무사자격증은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수록하였음

[나의 학습 노하우]

성공적인 학점 관리, 리포트와 조별과제로부터 시작하자

정치외교학과 11 홍성은

대학생들이 수강신청을 앞두고 하는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바로 ‘시험만 있는 과목’과 ‘과제로 시험을 대체하는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다. 시험만 있는 경우에는 학기 중 수업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시험의 부담이 커진다는 단점이 있다. 과제로 시험을 대체하는 경우에는 시험기간에 해야 할 공부의 양에 부담이 주는 반면, 과제 작성에 대한 큰 스트레스를 느끼게 된다. 또한 시험과 과제가 모두 평가항목에 들어가는 과목도 있다. 대학 생활 4년간 각자 성향에 맞게 모든 수업을 선택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는 무척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지난 3년간의 대학 생활을 되돌아보며 성적표를 살펴보니 나와 같은 경우에는 시험으로 평가하는 과목에 비해 과제로 시험을 대체해 평가하는 과목의 성적이 높은 편이었다. 시험의 경우에는 얼마나 충실하게 수업을 듣고 복습을 했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나뉜다. 하지만 리포트와 조별 과제의 경우에는 그 준비와 방법이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대학생활을 해오며 리포트와 조별 과제 수행에 도움이 되었던 몇 가지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



고자 한다. 먼저 과제 중 ‘리포트’를 작성할 때 중요한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해 살펴보자.

① 쓰고자 하는 글의 성격을 확실히 알고 시작하자.

학교를 다니면서 나를 가장 당황스럽게 했던 과제는 ‘감상문’이었다. 감상문이 무엇이 어렵다는 것인지 의아하게 생각될 것이다. 하지만 과제 없이 시험이나 간단한 에세이만으로 성적이 평가되는 과목들만 수강하다가 대학 생활 첫 과제로 받은 것이 ‘감상문’이었다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진다.

국문학과 과목인 「한국 문학과 영화」의 과제였던 ‘영화 감상문’을 쓰기에 앞서 나는 많은 고민을 했다. 명색이 ‘대학생’인데 중고등학교 시절 써서 제출하던 단순한 감상문과 내가 지금 과제로 받은 감상문은 분명히 다를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다. 그리고 결국 포털사이트에 ‘감상문’을 검색하기에 이르렀다. ‘감상문 쓰는 법’, ‘감상문 쓰는 양식’, ‘감상문 리포트’ 등 수많은 연관 검색어들 사이에서 내가 가장 먼저 선택한 것은 사전에 나와 있는 ‘감상문’의 개념이었다. 쓰고자 하는 글의 성격에 충실한 글이 좋은 평가를 받으리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자신의 생각과 느낌’이라는 키워드를 확실히 한 뒤에는 영화 평론가들의 블로그에서 영화와 관련된 가벼운 평론들을 여러 편 읽었다. 읽고 나니 내가 써야 할 내용과 내용 전개 방식에 대한 생각이 어느 정도 정리되었다. 먼저 간략한 줄거리를 소개한 뒤 영화 전체적인 느낌에 대해 서술했다. 다음에는 인상 깊었던 장면들과 그에 대한 내 생각을 서술하고 영화가 시사하는 바에 대해 이야기하며 마무리했다. 마지막으로 글을 다듬고 나니 영화에 대한 소개와 내 생각과 느낌이 적절한 비율로 어우러진 감상문이 완성되었다. 확실히 중고등학교 시절 작성하던 줄거리 반, 단순한 느낌 반이던 감상문과는 다른 느낌이었다. 이렇게 제출한 감상문은 당시 수강생들 중 가장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다.

리포트 작성에 앞서 학생들, 특히 1학년 학생들은 흰 화면을 띄워놓고 어떻게 글을 작성해야 하는지 한참을 고민할 것이다. 이런 학우들에게는 먼저 쓰고자 하는 글의 성격을 확실히 파악하기를 추천한다. 앞서 이야기했던 나의 사례처럼 글의 개념을 파악한 뒤, 그와 같은 종류의 잘 된 글들을 읽다 보면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이 차근차근 자리를 잡아 나간다. 글의 성격에서 벗어나지 않게 작성 중간 앞의 문장들을 확인하며 빠지거나 부족한 내용들을 보충해나가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② 글 작성만큼이나 중요한 '개요' 짜기.

리포트를 작성할 때, 대부분의 학생들은 무작정 글을 써내려가기 시작한다. 나 또한 처음에 리포트를 작성할 때 떠오르는 생각들을 그저 나열하는 데서 시작했다. 이렇게 글을 써내려가다 보면 가장 큰 문제는 주제나 논점이 흐려진다는 데 있다. 첫 부분은 괜찮게 시작했더라도, 논리적이고 체계적이어야 할 글이 '의식의 흐름'에 따라 완전히 망가져버린다는 것이다. 그렇게 글의 중심부까지 내려오면 앞부분의 어느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해야 할지도 모호해지고, 이후 고쳐 쓰기의 단계에서도 난감해지게 된다. 조금 더 강하게 말하자면, 계획 없이 쓰는 글은 시간 낭비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본격적인 리포트 작성에 앞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개요'를 짜는 것이다. 개요는 작성하는 글의 뼈대가 되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기둥이 튼튼해야 건물이 튼튼하듯이, 잘 작성된 개요는 잘 된 글을 만든다. 글의 주제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다면 개요를 작성해 보자.

먼저 해야 할 것은 글의 '제목'을 정하는 것이다. 제목은 가능한 한 간단하게 작성하되 글의 내용과 성격을 모두 포괄하여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는 논하고자 하는 '주제'를 명확히 해야 한다. 한 줄로 표현할 수 있는 주제가 정해졌다면, 주제의 내용을 주요 논점으로 나눈다. 그리고 그 논점의



하위 항목을 밝혀준다. 그 후에는 논점과 하위 항목이 될 수 있는 ‘중심 문장’을 한 문장으로 작성해본다. 여기까지가 리포트의 개요 작성 방법이다. 앞에서 작성한 중심문장을 시작으로 그와 관련된 내용을 전개해나가면 되는 것이다. 개요 또한 다듬고 수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도 잊지 말자.

개요를 먼저 작성하고 완성한 글과 그렇지 않은 글은 나중에 읽어보면 큰 차이를 보인다. 개요 없이 시작한 글이 어질러진 방이라면, 개요와 함께 시작한 글은 잘 정리된 방이라고 할 수 있다. 잘 작성된 개요 안에 차근차근 내용을 채워나가기만 하면 리포트 작성은 어렵지 않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③ ‘고쳐 쓰기’, 생략하면 안 되는 이유.

대부분 과목의 과제 제출 기간은 시험기간 직전의 2-3주간으로 비슷하다. 그렇기에 학기 초에 공지가 되어 미리 시작해놓지 않은 이상 여러 과목의 과제가 밀려있어 급하게 작성하기 마련이다. 특히, 온라인 이클래스 제출의 경우 많은 학생들이 과제제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제출하는 까닭에 ‘고쳐 쓰기’의 단계를 생략한다. 그렇지만 제출 이후 내가 작성한 글을 다시금 읽어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속출한다. 작성 후 글을 다시 읽다보면, 작성할 때는 몰랐던 주제와 맞지 않는 문장들이나 지나치게 주관적인 내용들이 눈에 띈다. 또한, 오타와 잘못된 맞춤법, 앞뒤가 맞지 않는 문장 어순들은 여러 번 읽을수록 계속해 눈에 보인다.

글을 읽을 때는 먼저 글의 내용이 통일성과 일관성을 가지는지에 중점을 두고 보아야 한다. 주제에서 벗어나거나 논점을 흐리는 문장은 삭제하고, 생각이나 느낌을 서술하는 부분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지만 논리적이고 간결하게 전달되도록 수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서론, 본론, 결론의 분량도 검토해보아야 한다. 서론이나 결론이 지나치게 길지는 않은지, 지나치게 많은 내용을 서술하지는 않았는지 확인해보자.

서론은 글의 목적, 이론적 개념, 글의 구성 및 내용에 대한 간단한 제시에서 끝나야 한다. 결론은 앞의 내용을 반복하되 ‘요약’된 내용이어야 하며 글의 끝맺음이라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오타의 경우 단순한 ‘실수’라고 생각하면 마음 편하겠지만, 내 과제를 평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 된다. 오타는 잘 된 문장, 잘 못된 문장을 구분 않고 일단 그를 중심으로 시선이 쏠리게 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특히, 주제 문장이나 문단의 중심 문장에서 나타난 오타는 치명적이라 할 수 있다.

잘못된 맞춤법 또한 그러하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사용하는 한글 문서 작성 프로그램의 경우 맞춤법을 빨간 줄로 짚어주긴 한다. 하지만 프로그램이 문장의 앞 뒤 맥락까지 고려하여 알려줄 정도로 진화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어법에 맞추어 올바르게 사용한 표현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자. 또한, 사용한 단어의 유의관계에도 주의하여 살펴보자. 비슷한 단어인데 전혀 다른 뜻인 경우도 있다.

앞뒤가 맞지 않는 문장 어순의 문제는 가장 심각하다. 어긋난 어순은 내용의 오류로까지 이어진다. 주어와 서술어가 잘 호응하는지, 접속어가 알맞게 사용되었는지, 이어진 문장이 어색하지는 않은지 꼭 확인해보아야 한다. 과제 제출과 함께 발표나 발제가 있을 경우, 읽으면서 오류를 찾아내면 당황하기 마련이다. 그러다보니 그 날의 발표를 성공적으로 해내지 못하는 사례를 여러 번 목격해왔으며, 나 또한 그런 상황을 겪어보기도 했다. 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작성한 과제를 제출 전에 소리 내어 읽어본다. 눈으로 읽을 때는 무의식적으로 글 맥락 위주로 읽기 때문에 잘못된 문장을 지나칠 가능성이 크지만 소리 내어 읽을 때는 글의 내용을 짚기 때문에 잘못된 문장을 골라내기가 쉬워진다.

또한, 다른 이의 글을 인용하거나 차용하는 경우 ‘각주’ 부분도 꼭 확인하자.



교수님들께 가장 지적을 많이 받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잘못된 ‘각주’의 사용이다. 출처만 확실히 밝히면 된다고 생각하기 마련인데, 사용하는 매체마다 각주 다는 순서와 방법이 다르다. 나는 각주 다는 법에 익숙해 질 때까지 메모장에 각주의 순서와 그 예시를 적어놓고 수시로 확인하며 수정하고는 했다.

이렇듯 고쳐 쓰기의 과정까지 수행한 글이 바로 제출에 적합한 ‘완벽한 리포트’라 할 수 있다. 과제 제출 전에 최소한 두 번 정도는 글을 다시 읽고 수정하는 과정을 거칠 것을 추천한다. 또는 다른 학우에게 부탁하여 어색한 부분을 함께 찾아내는 것도 방법 중 하나다.

④ 교양 필수 과목 「글쓰기」를 충실히 수강하자.

1학년 때 학생 모두가 필수적으로 수강해야 하는 과목이 있다. 「영어」와 「글쓰기」 과목이 바로 그것이다. 어디서든 중요하게 생각되는 영어이기에 그 그늘에 가려져 상대적으로 「글쓰기」 과목은 그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나 또한 이를 충실히 수강하지 못해 이후 리포트 작성에 익숙해지기 까지 꽤나 힘들었다. 익숙해 진 이후, 1학년 당시를 되돌아 생각해보니 작성할 때 필요한, 그리고 중요한 이 모든 방법들은 모두 「글쓰기」 수업에서 다른 내용이었다. 과목 수강 당시 좀 더 흥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수강했다라면 좋은 리포트를 쓰기까지 이처럼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또한, 글쓰기 과목의 가장 큰 장점은 나의 글을 첨삭해 줄 수 있는 ‘튜터’가 있다는 점이다. 앞서 말했듯이 홀로 글을 쓰고 수정하고 추가하는 과정에서 허점은 생기기 마련이다. 그렇기에 전문적인 튜터들과 함께 작성한 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도움을 받는 것은 좋은 리포트를 쓰기 위한 연습의 첫 걸음이라 할 수 있겠다.

1학년 과목들은 상대적으로(물론 수강하는 과목에 따라 다르다.) 수업의 부담도 적고, 과제의 난이도가 크게 어렵지 않은 편이다. 「글쓰기」를 단순히 꼭 수강해야만 하는 과목으로 생각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왜 학교에서 이 과목을 ‘교양 필수’ 과목으로 지정했는지 한번쯤 생각해보자. 교재로 사용하는 「단계별로 익히는 실전 글쓰기」를 참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글쓰기」 과목을 충실히 수강하고 배운 내용을 차근차근 과제에 적용시켜 나간다면 앞으로 4년간의 대학생활에서 리포트는 더 이상 학점의 장애물이 되지 않는 것이다.

여기까지 리포트를 작성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네 가지 항목들에 대해 이야기 해 보았다. 다음으로는 ‘조별 과제(팀 프로젝트)’의 과정에서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는 방법 네 가지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 한다.

① 조원들과 함께 ‘브레인스토밍’을 하자.

조별 과제에 대한 큰 주제가 주어지고, 가장 난감한 상황 중 하나는 낯선 사람들과 둘러 앉아 ‘그래서 우리는 무엇에 대해 할까요?’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것이다. 잠깐의 침묵이 흐르고 모두 서로를 바라보며 무엇인가 먼저 말해주기를 기다리거나 시선을 피하고는 한다. 간혹 결국 주어진 시간 내에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고 ‘다시 생각해 봅시다.’라는 말만 남기고 헤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이 큰 주제를 중심으로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것이다.

먼저 조원들이 각각 주제에 대해 생각나는 사항들을 자유롭게 이야기 한다. 누군가 한명만 먼저 적극적으로 시작한다면 연쇄 반응으로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다. 꼭 새로운 생각을 내놓지 않아도 된다. 먼저 이야기 한 상대방의 생각에 내 생각을 덧붙일 수도 있고, 이야기 나온 의견에 착안하여 수정된 의견을 내놓을 수도 있다. 조장은 종이 위에 이 내용들을 정리



한다. 이렇게 브레인스토밍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지금까지 나온 의견들 중 각자 흥미 있는 주제를 선택하도록 한다. 그리고 그 주제에 대해 각자 간단한 자료 조사를 한 이후에, 다시 모여 각자의 자료를 살펴본다. 조사한 자료 중 조원들의 동의가 가장 많은 주제를 중심으로 과제 수행을 시작하는 것이다.

빠르게 한 가지 주제를 선택하여 그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고 물을 수도 있다. 하지만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주제 선택은 이후 많은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 조사를 시작해보니 생각보다 부족한 바탕 자료라든가, 다른 조와의 주제 중복 등의 문제는 과제 수행이 어느 정도 진행 된 이후에 주제를 수정하고 처음부터 다시 하는 낭패를 불러온다. 이후 변경 없는 확실하고도 참신한 주제, 모두의 흥미를 반영해 적극성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주제를 찾아내기에는 ‘브레인스토밍’이 제격이다.

② 확실한 역할 분담이 조별과제의 성패를 가른다.

주제가 정해진 이후에 가장 중요한 과정 중 하나는 바로 ‘역할 분담’이다. 조별과제의 목표는 조원들이 협력하여 가장 좋은 결과를 내는 데 있다. 확실한 역할 분담은 조별과제의 성패를 가른다. 조별과제는 혼자 하는 과제보다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지만, 서로 다른 개개인의 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위험요소를 함께 가지고 있다. 이 위험요소만 극복한다면 조별과제는 개인과제보다 그 수행이 수월하다.

가장 좋은 방법은 역할 분담에 앞서 조원들 각자가 잘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먼저 이야기 하고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다. 자료 조사의 경우 관련한 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거나, 흥미 있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게 한다. 한 부분에 선택이 집중되는 경우 물론 조장이 개입하여 적절히 역할을 배분하고 양보가 이루

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각자 자유의지에 의해 선택한 역할의 경우, 누군가에 의해 주어진 역할보다 적극적이고 원활히 수행될 수 있다.

가장 기본적인 역할 분담의 형식은 개요 및 서론 작성, 본론 부분 자료 조사, 결론 및 발표 자료 작성이다. 과목의 성격과 주제에 따라 배정되는 인원의 수나 역할의 분담은 달라질 수 있다. 일단 역할 분담이 수행된 이후에는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한다. 여기서부터 조장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자료 조사 기한은 충분히 잡되, 조장은 결론 및 발표 자료 작성자를 고려하여 과제 제출이나 발표 날짜에서 최소한 3-4일의 여유를 잡고 자료 조사와 정리를 마칠 날짜를 명확히 정해주는 것이 좋다. 마감 일자를 확실히 정해놓으면 조원들도 긴장감을 가지고 자료 조사에 임할 수 있고, 결론 및 발표 자료 작성자는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좋은 결과물을 완성시킬 수 있다. 또한, 조원들 간에 일어날 수 있는 불미스러운 분쟁의 위험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③ ‘온라인 조모임’을 적극 활용하자.

조별 과제 시 난감한 것 중 또 하나는 각기 다른 수업 시간표와 일정 때문에 모두 모이는 시간을 정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그렇기에 대부분 조모임 약속을 주말로 미루고는 한다. 하지만 주말에는 누구나 그렇듯 돌발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일부 책임감 없는 이들은 협력보다도 개인의 휴식을 우선시 해 참석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각자 의견과 자료를 모아야지만 원활히 진행될 수 있는 조별 과제, 오프라인이 어렵다면 온라인을 활용하자.

스마트폰을 잘 활용한다면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원하는 자료를 찾고, 편집하고, 남과 나눌 수 있다. 또한 자료를 쉽게 주고 받을 수 있는 모바일 커뮤니티도 크게 활성화되어 있다. 나는 조별과제를 할 때



‘카카오톡’의 단체 채팅방과 ‘네이버 밴드’의 커뮤니티 공간을 적극 활용했다. 카카오톡의 단체 채팅방은 모두들 주요 사항을 알리기 위해 주로 사용한다. 하지만 채팅방은 단순히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에서, 자유롭게 자료를 주고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까지 발전했다. 이러한 카카오톡의 가장 큰 강점은 PC버전의 출시에 있다. 카카오톡의 PC버전은 모바일과의 호환 안정성이 높은 편이며, 자료 전송도 손쉽다. 스마트폰에 ‘폴라리스 오피스’와 같은 마이크로소프트 문서 연동 어플을 설치한다면, 스마트폰에서도 카카오톡으로 받은 자료를 그 자리에서 열어보고 편집할 수 있다. 하지만 카카오톡은 대화 내용이 많아지면 전송된 자료를 찾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으니, 이를 보완해 줄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 그 방법이 바로 ‘네이버 밴드’의 활용이었다. 카카오톡과 마찬가지로 모바일과 PC버전의 호환성이 좋고, 어플의 사용 방법도 간편하다. 네이버 밴드는 용량이 큰 자료를 올리거나 내려 받을 때, 자료가 포함된 인터넷 페이지를 공유할 때 유용하다. 뿐만 아니라 각자의 게시글에 댓글을 달 수도 있어 피드백을 주고받기도 편리하다. 또한, 모바일로 문서를 열 때 타 어플과 연동하지 않고도 바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처럼 조별 과제에서 온라인 공간의 적극적 활용하면, 조원 각자의 일정에 크게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도 효율적으로 조별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온라인 공간의 활용은 여러 개의 조별 과제의 기간이 겹칠 때도 유용하다.

④ 조원 간의 원활한 피드백은 완성도 높은 과제물을 만든다.

앞서도 말했듯이 조별과제의 목표는 조원들이 협력하여 가장 좋은 결과를 내는 데 있다. 역할 분담 뒤 맡은 바 역할만 모두 수행하면 나의 과제는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조별 과제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하는 것이기에 최종 결과물이 나오기 전까지는 나의 역할도 끝난 것이 아니

라고 생각해야 한다.

나의 경우를 사례로 들자면, 이번 학기 정치외교학과 전공과목 「국제기구」 수업의 경우, 조원 간의 각자에 대한 피드백이 원활히 이루어져 성공적으로 과제를 해 낼 수 있었다. 발표 자료 작성 전에 서로의 자료를 모두 확인해 보고 겹치는 내용에 대해서 수정과 삭제가 이루어졌다. 확인없이 넘어갔더라면 발표 자료 작성자가 크게 애를 먹었을 부분이다. 부족한 부분은 사용한 바탕 자료를 주고받으며 보충할 수 있게 서로 도왔다. 또한, 조원 각자가 맡은 부분을 발표하는 형식이었기에 수업에 들어가기에 앞서 발표 연습을 하며 서로의 발표 대본과 자세, 목소리 크기, 시선 처리 등 발표 태도를 체크해주었다. 첫 순서의 발표였지만 좋은 평을 들으며 마무리 할 수 있었다.

최종 결과물이 나오기 전까지 중요한 과정 중 한 부분은, 조원들 간에 각자 맡은 자료 조사나 역할에 대해 원활한 피드백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조원들이 각자의 자료를 확인하고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을,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주어진 주제 아래서 연결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최종 과제 작성 시 본론부분에서 맡은 자료가 매끄럽게 연결될 수 있는지도 살펴보고 연결되는 순서에 있는 조원들은 서로 진행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야 한다. 또한, 자료의 보충이나 수정을 서로 돕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조별 과제의 경우 대부분 발표를 수반하는데, 앞서 사례처럼 발표 연습을 모두 함께 해 보고 각자의 태도를 점검해 주는 것은 실전에서 크게 도움이 된다.

여기까지 리포트작성과 조별 과제 수행에 대해 이야기 해 보았다. 시험뿐만 아니라 리포트 작성과 조별 과제 수행 또한 잘 해낼 수 있다면 대학생활에서 성공적인 학점 관리는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가장 기본적인지만 중요하다고 생각해왔던 이 내용들이 과제 수행에 앞서 막막함과 어려움을 느끼는 학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